

황 경 숙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학교 성교육 지도서 분석

2009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 종 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학교 성교육 지도서 분석

황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 종 은

인 준 서

박종은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학교 성교육 지도서의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 (gender-sensitive perspective)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청소년 성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성교육 담론이 구성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학교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실시된 1983년도 이래 정부에서 발간된 성교육 지도서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학교 성교육 지도서의 내용은 순결 교육 담론,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담론, 평등 교육 담론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먼저 순결 교육 담론을 보면, 초기 성교육 지도서에서는 순결의 윤리적 가치를 강조했으나 후기로 올수록 청소년의 성행위가 야기하는 위험과 현실적 문제들을 설명하며,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지도 내용이 변화해왔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성적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혼전 성관계는 여성에게 손해라는 기존의 젠더 차별적 논리를 따르고 있다. 남녀의 성욕 차이에 대한 과학적 지식도 변함없이 정당화의 근거로 제시된다. 2차 성징과 신체 변화와 관련해, 남성은 성적 욕망을 중심으로 여성은 모성을 중심으로 성정체감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젠더 차별적인 지도도 거의 변화 없이 지속되어온 내용이다. 즉, 여전히 여성 청소년의 성을 통제함으로써 청소년 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계를 볼 수 있다.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담론에서 성폭력과 성매매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설명되지만 그 이면의 차별적 젠더권력 관계가 일상적인 성문화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평등 교육 담론은 초기 지도서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역할의 차

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상호보완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후기로 올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비판되고 양성성이 바람직하게 제시된다. 남녀의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성역할 사회화 과정이 비판된다.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변화해 왔으나 가부장적 사회의 성별분업 체제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청소년 성문제는 주로 여성의 몸에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이 성교육의 주 대상으로 통제받고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교육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성문제는 단순히 성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 권력관계가 투영되어 발생하는 젠더화된 섹슈얼리티(gendered sexuality)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성 청소년들은 가부장적 사회의 젠더 체계가 여성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지 깨닫고, ‘생물학적 운명’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성 청소년들의 진정한 세력화가 가능해지면, 새로운 방식으로 남성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 성문제도 새로운 해결의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존재로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교육에 여성주의적 시각이 도입되어 차이와 평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방법	3
2. 선행 연구의 분석	7
II. 이론적 배경	15
1. 청소년의 성에 대한 논의들	15
2. 성인지적 관점의 성교육	20
III. 성교육 담론의 구성 과정	22
1. 사회변화와 성교육 담론의 등장	22
1) 성문화의 변화	22
2) 서구 성과학과 성교육 담론의 유입	25
2. 학교 성교육 담론의 구성 과정	29
1) 혼란한 사회적 상황과 정결 교육의 필요성 대두	30
2) 순결 교육 담론의 구성	33
3. 학교 성교육 변천 과정	43
IV. 성교육 지도서 내용 분석 결과	49
1. 순결 교육 담론	49
1) 여성 순결 교육	49

2)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의 한계	59
3) 남녀의 성생리 차이에 대한 지식	69
4) 순결 교육의 한계	77
2.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담론	79
1) 성폭력 예방 교육 담론	79
2) 성매매 예방 교육 담론	82
3) 젠더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필요성	84
3. 평등 교육 담론	90
1) 남녀평등 교육에서 양성평등 교육으로	90
2) 추상적 평등 교육의 한계	94
V. 결론	98
1. 연구 결과의 요약	98
2. 시사점 및 제언	101

참 고 문 헌

ABSTRACT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목적

오늘날 청소년 성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학교 폭력과 결합된 형태의 범죄로도 발생하고 있다.¹⁾ 이러한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성교육이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곤 한다.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문화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데, 입시위주 교육으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며 경쟁위주의 학교 문화가 인성교육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성교육을 통해 정확한 성지식을 배우고 건전한 성윤리 의식을 함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한 청소년 성문제의 증가로 학교 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을 ‘성교육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2001년에는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침’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하여, 연간 10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왔다. 2007년 12월에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법률 제8678호) 2009년 3월부터 성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연간 17시간 이상 실시되게 되었으며 보건 교과도 신설된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수업 시간이 늘어나도 성교육의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한다.²⁾

1) 밀양(2004.12), 익산(2005.4), 서울 용산(2006.1), 순천(2006.3), 경기도(2007.3) 등 학생 집단 성폭력 사건은 계속 발생해 왔으며, 이에 학교폭력에방및대책에관한법률(2004)이 2008년에 개정되며 성폭력 문제가 포함되었다.

한국에서 학교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실시된 것은 1982년도에 들어서이지만, 그 필요성은 근대화로 인한 사회 변화로 인해 오래 전부터 주장되어 왔다. 개방적 성문화의 영향으로 청소년이 문란해진다는 우려 속에서, 학교 성교육 실시의 1차적 목적은 학생들의 성적 문제 행동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성의식을 가진 성인으로 길러내는 데에 있었다. 그런데 근대화로 인한 사회의 변화란 공-사 영역 분리, 여성의 사회적 진출로 인한 남녀 관계의 변화, 가족 형태와 생활 방식, 가치관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문제였다.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가 사회의 성적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사회화시키고자 하는가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실제로 학교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교육계가 가장 고민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과학적 성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문화와 사회적 규범에 맞는’ 건전한 성의식과 바람직한 남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학교 성교육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은, 그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다음 세대를 사회화시키기 위해 구성된 하나의 ‘담론’이다. 따라서 그 사회가 지향하는 성 윤리 가치관, 그 사회의 성적 질서와 남녀 관계를 규정하는 젠더 체계(gender system)가 반영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학교 성교육의 내용을 성인지적(gender-sensitive) 관점에서 비판하고자 한다. 사회적 성문제는 주로 여성의 몸에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므로, 주로 여성 청소년들의 성이 통제받고 관리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성교육은 청소년 성문제 해결에 있어서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 성문제는 단순히 성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권력 관계가 투영되어 발생하는, 젠더화된 섹슈얼리티(gendered sexuality)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제적 성폭력보다 일상적 친밀감이 성적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오늘날의 청소년 성문화를 고

2) 늘푸른여성지원센터 뉴스레터, 2008.10.10

려할 때, 청소년 성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여성 청소년들을 세력화시켜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점점 더 성애화 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여성 청소년들은 예전보다 훨씬 섹슈얼리티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젠더 차별적 권력 관계로 인한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가부장적 사회의 젠더 체계 속에서 여성이 규정되는 방식을 성찰해 보는 작업은 여성 청소년의 문제 해결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성교육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그것이 청소년 성문제 해결에 한계로 작용하는 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성교육 담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성되어 왔는가를 고찰해 본다.

둘째, 공식적인 학교 성교육이 실시된 이후의 성교육 지도서들의 주요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성교육 담론이 구성되어온 과정을 관련 문헌들을 통해 역사적으로 고찰해 본다. 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대였다. 당시 어떠한 배경에서 성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으며 무엇이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는가 살펴보겠다. 이는 그러한 초기의 문제의식이 이후의 학교 성교육 담론에도 계속 반영되며 유지되어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해방 후 격동적인 사회변화를 겪으며 학교 성교육 담론이 구성되어 가는

과정을 『새교육』³⁾을 위시한 교육학회지들에 나타난 교육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교육계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공교육’이라는 특성이 학교 성교육의 목적과 방향,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본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교육은 서구 사회에서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 성경을 중심으로 한 문자 해독 능력이 강조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적 교육의 형태로 세속성을 띠며 확대되었으며, 이는 민족국가의 형성과정에서 국민 통합과 사회 통합의 필요성에서 이루어졌다. 즉, 근대 이후 공교육은 국가가 국가적 필요를 위해 구성원을 관리해온 교육 형태라고 할 수 있다(이윤미, 2004). 19세기 중반 비서구 세계는 서구화 과정을 근대화로 간주하고 모방하기 위해 힘썼는데, 시민혁명의 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 위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동아시아 중심의 후발형 국가에서는 부국강병의 근대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교육적인 역할이 강조되었다. 한국도 철저한 국가관리의 공교육 제도를 운영해 왔다. 1991년 교육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의 권한의 일부를 시·도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으로 이양하기는 했지만,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과서 제작과 관련한 사항 등 아직도 전반적 권리는 중앙정부가 결정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김신일, 2004).

근대 사회에서 학교는 가정과 사회를 잇는 사회화의 핵심 주체로서 산업자본주의 사회에 필요한 인간형을 만들어내는 장이 되었다. 학교는 교과과정을 통해 근대적 지식을 교육하고 각종 규율을 통해 근대적 태도를 배양했다. 학생

3) 1948년 7월 15일 대한교육연합회의 전신인 조선교육연합회에서 창간한 교육전문 잡지이다. 창간목적은 8·15해방 후 대중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알리고 교육발전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집필자들은 주로 교육전문가나 교사들이었고, 교육행정을 비롯한 연구방법과 교육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실었다. 『새교육』은 한국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브리태니커백과사전).

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학교의 훈육조직은 교과과정, 행사 계통, 훈육 계통, 양호위생 계통, 근로봉사 계통, 관리 계통 등 제반 영역에서 세밀하게 짜여졌다(김진균 외, 2003). 학교 교육이 규율을 내면화시켜 근대적 주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왔는데, 보울스(Bowles)와 긴티스(Gintis)는 학교 교육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규칙과 학습 및 노동의 규범, 복종, 시간 엄수 등을 강조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태도와 능력을 함양하고 노동력을 훈련시키는 장치라고 하였다. 애플(Apple)은 그러한 통제가 잠재적인 교육과정 뿐 아니라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고 하였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은 특정 시대, 특정 제도 내에서 특정한 사회 집단과 계층에 의해서 어떤 지식이 객관적이고 정당한 지식으로 간주되는가 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알튀세르(Althusser)는 교육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피지배계급에게 내면화시키는 중요한 국가적 이데올로기 기구라고 하였다(나병헌, 2004). 공교육 제도로서의 학교 교육의 이러한 특성은 학교 성교육이 어떠한 틀 안에 위치하게 되는가 하는 점을 드러내 준다.

셋째, 공식적인 학교 성교육 실시 이후 1983년부터 정부에서 발행한 성교육 지도서들의 내용을 분석한다.

다양한 교육 기관과 사회 단체에서 성교육 지도서와 교재들을 발행해 왔지만 이렇게 분석 대상을 한정시킨 이유는, 정부에서 발행한 지도서가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규정되는 성가치를 이념형으로 제시해주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성교육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사회화시킬 것인가에 관한 국가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므로,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보수적인 성가치가 교육되고 재생산되게 된다. 학교 성교육은 청소년 성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요청되어 왔다. 성교육은 가정 교육에 속

하는 문제라고 여겨졌기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계속 미루어 왔으나, 대중 문화와 소비 문화의 발달로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성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자극 요인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실시되었던 1983년도 성교육 지도서는 이전까지 이루어져온 교육계의 담론들을 총정리 해놓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사회의 성문화가 급속도로 변하고 청소년 성문제도 심각해지면서 이후 성교육 지도서들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된다. 성교육 지도서에서 중요 내용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오늘날 청소년 성문제 해결에 한계로 작용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성교육 지도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표1> 학교 성교육 내용 분석 대상 자료

발행 연도	학교 성교육 지도서	발행인
1983년	성교육 지도자료 -중·고등학교 교사용-	문교부
1993년	중학교 성교육 자료 (교사용)	교육부
1993년	고등학교 성교육 자료 (교사용)	교육부
2001년	(성교육교사용지도지침서) 함께 풀어나가는 성 이야기-중학교-	교육인적자원부
2001년	(성교육교사용지도지침서) 함께 풀어나가는 성 이야기-고등학교-	교육인적자원부
2008년	소중한 성 바로 알기 -중·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교육인적자원부, 부산광역시교육청

2. 선행 연구의 분석

중·고등학교 성교육 내용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관련 과목의 교과서, 성교육 지도서나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정옥(1988)은 성교육 관련 교과인 가정, 생물, 체육, 사회, 윤리의 내용을 학교 급별로 분석했는데, 전반적으로 신체적·생리적인 내용에 치우쳐 있었고, 중복되거나 편중되어 있는 내용이 많았다고 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지 않으며 교과 간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김미주(1997)는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교재의 내용을 미국 성정보교육학회 SIECUS(Sex Information and Education Council of the United States) 성교육 영역분류표⁴⁾를 재구성한 개념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과 행복』(서울시교육청, 1998)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는데 전체 영역의 56.9%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영역별로는 사회와 문화 영역이 가장 높았고 (92.9%), 성건강, 인간발달, 성행동, 인간관계, 대인 기법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성교육 교재 4권은 전체 영역의 포함 정도가 47%였고, 영역도 인간발달이 가장 높았다.

박필남(1998)은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교과인 윤리, 교련, 생물, 가정, 체육의 교과서 45권을 김미주(1997)의 분석틀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내용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과목은 가정이었고 생물, 교련, 윤리, 체육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관련 교과가 인간발달 영역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었으며 사회와 문화, 대인기법 영역은 낮게 포함하고 있었다.

배영희(1999)는 고등학교 과정 『성과 행복』(서울시교육청, 1998)을 김미주

4) 인간발달, 인간관계, 대인기법, 성행동, 성건강, 사회와 문화의 6개 영역 하위 36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997)의 틀로 분석했는데, 전체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는 60%였으며, 영역별로 사회와 문화(93.8%), 인간발달, 인간관계, 성건강, 성행동, 대인기법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영희는 『성과 행복』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다른 성교육 교과서나 지도서들과 다루는 영역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하고, 성교육이 전인교육이 되려면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하므로 대인기법 영역에 속하는 의사결정, 의사소통, 가치관 교육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손성진(2000)은 선행 연구들의 성교육 영역체계들을 기반으로 신체발달, 심리발달, 인간발달, 사회발달, 가정발달의 5개 영역 하위 50개 주제의 성교육 체계를 재구성하여, 1990년 이후에 발행된 중고등학생용 성교육 교재 7권⁵⁾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체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주제가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인간발달 영역에 대한 주제가 가장 적게 포함되어 있었다.

김혜원 외(2001)는 7차 교육과정의 공통사회, 국어(상), 국어(문학-하), 공통과학, 가정, 체육, 교련 교과서에 나타난 성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교육 관련 내용이 교과별로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성교육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과의 특성과 목표에 치중하게 되어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어주지 못하고 피상적인 내용만 다루게 된다고 하였다.

고진경(2002)은 7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성교육 관련 교과인 가정, 과학, 체육, 사회, 도덕의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다루고 있는 성교육 내용을 SIECUS의 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간발달 영역이 가장 많았으며, 대인기법, 인간관계, 사회와 문화, 성행동, 성건강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별

5) 『어른이 되나봐요』(한국교육개발원, 1996), 『우리는 예비 어른』(한국교육개발원, 1996), 『성교육 지침서』(인천광역시교육청, 1997), 『성과 행복』(서울특별시교육청, 1998), 『10대 우리들의 성』(김인호 외 3인, 1994).

로 보면 기술·가정, 도덕, 체육, 사회, 과학의 순으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는데, 동일한 내용이 둘 이상의 교과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일부 영역에 치우쳐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숙자(2003)는 6차 교육과정의 가정과 교과서와 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 교과서 8종의 성교육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7차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성교육 관련 내용이 양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성교제에서 지켜야할 예의, 자위 행위, 인공임신중절, 성인성 질환, 몽정과 사정, 성폭력 예방 등의 내용이 보다 수용적이고 열려진 자세로 기술한 교과서가 증가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임에 관한 내용은 8종 중 6종의 교과서만 다루고 있고, 성교에 대한 내용도 수정과 임신만 다루므로, 중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현정(2003)은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교과 내용을 SIECUS의 틀로 분석했는데, 인간발달 영역 중 생식기, 해부생리, 임신과 출산이 과학과 생물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인간관계 영역 중 자녀 양육에 대해 기술·가정에서 많이 다루었다. 성건강 영역은 전반적인 교과에서 다루었으며 성행동 영역 중 자위, 금욕, 성적 반응은 체육과 교련에서 언급되었고 그 외의 주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대인관계 영역에서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 적었으며, 사회와 문화 영역에서 성역할과 성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도 적었고 그 외 주제는 다루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생의학적 지식과 관련된 내용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혜숙(2004)은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 교과서 7종의 성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과학에서 성교육 내용은 생식 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내용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임신, 출산, 성건강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들은 학생들이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생들

의 수준을 고려한 성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조희순 외(2005)는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교육인적자원부, 2001)의 성교육 영역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성관련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의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인간관계 이해, 성문화 및 성심리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분석했을 때, 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은 주로 1학년때 다루어지며, 교과별로는 고등학교 1학년 도덕과 생물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이영란(2006)은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교육인적자원부, 2001)의 성교육 영역분류표를 재구성한 분석틀을 사용하여,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과목(생물I, 사회, 도덕, 체육, 사회문화, 시민윤리, 인간과 사회와 환경, 인간발달, 가정과학, 체육과 건강)의 교과서 44권에 관련 내용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신체 및 심리 발달 영역은, 고등학교 1학년(사회, 생물I, 도덕, 체육)에서 임신과 출산, 사춘기의 신체 및 성적 발달, 성심리 발달에 대한 내용을 3.7% 다루었다. 고등학교 2, 3학년(체육과 건강, 가정과학, 사회문화, 시민윤리, 인간발달, 인간과 사회와 환경)에서는 6.35% 정도를 다루었다. 인간관계의 이해 영역은 고등학교 1학년은 체육에서만 결혼과 가정, 이성과 사랑에 대해 다루고 있었으며(0.53%), 고등학교 2,3학년에서는 관련 내용을 0.4% 정도 다루고 있었다. 성문화와 성윤리 영역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0.28% 정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성차 및 성역할, 양성평등 사회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2, 3학년에서는 0.2% 정도의 내용만 다루었으며 성폭력, 대중매체와 성, 성상품화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만 미흡한 수준에서 다루고 있었으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문화와 성윤리를 함양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지적 하였다.

김운주 외(2007)는 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10종을 분석하

었는데, 성교육 관련 내용은 전체의 11.9%를 차지하였다.

최미희(2008)는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성교육 관련 교과인 기술·가정, 체육, 과학, 사회, 도덕 교과서 17권의 내용을 경기도교육청의 성교육 영역분류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가정이 성교육 영역분류표의 총 28개 주제 중 가장 많은 성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었으며, 체육, 도덕, 과학, 사회의 순이었다. 다루어진 내용은 과목별로 심하게 중복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4개 과목(기술·가정, 체육, 사회, 도덕)에서 사춘기 신체 변화와 심리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었으며, 3개 과목에서 남녀 생식기 구조와 기능, 호르몬의 영향과 2차 성징, 임신, 성충동과 자위행위, 이성교제, 성역할과 고정관념을 다루었다. 2개 과목에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인공임신중절, 피임, 성병, 바람직한 의사소통,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양성평등을 다루었다. 한편, 성적 자기결정권과 남녀 성심리 차이, 사이버 성폭력과 성상품화, 성매매는 모든 교과에서 다루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생식 관련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성교제와 성충동, 성폭력, 임신, 낙태 등의 내용을 청소년 성문제의 영역으로 다루고 있었다.

한편, 성교육 지도서의 내용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데, 황은자(1993), 김현미(1997), 나윤경(2002)의 연구가 있다. 황은자(1993)는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83), 대한가족계획협회(1984), 한국청소년연구원(1990)에서 발행한 성교육 지침서들의 내용을 분석하고, 신체결정론적 성지식이 여성 순결교육과 성역할 분업을 정당화하며 남녀차별적 성 이중규범을 재생산한다고 비판하였다.

김현미(1997)는 전교조직원노동조합여성국(1995), 사잇소리(1993), 서울시교육연구원(1983), 서울시교육청(1997)에서 발행한 성교육 지침서들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월경, 처녀막, 음핵에 대한 대안적 설명을

제시한다. 성교육은 섹슈얼리티가 남녀 권력관계의 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여성이 재생산 존재로 규정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나윤경(2002)은 가장 많이 읽힌 청소년 대상 성교육 지침서 4권⁶⁾을 선정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대부분 젠더 차별적인 시각에서 서술되어 있었는데, 여성의 건강한 성은 혼전 순결과 결혼 후 남편의 성욕에 순응하는 것으로 서술하거나(김종만, 1999), 여성을 성욕이 없는 존재로 묘사하고 남성은 여성의 처녀성을 지켜주어야 하며, 혼전 성관계는 낙태와 미혼모, 매매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고 설명한다(이순열 외, 2000). 남성의 섹슈얼리티는 늑대 같아 제어할 수가 없으므로 여성은 여우처럼 굴어서 임신과 성병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한다(北村邦夫, 2000). 그러나 호주의 저널리스트인 브로닌 도너기가 쓴 책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도 성적 욕망을 가진 존재로 보며 처녀성에 집착하지 않고 가장 안전한 피임법으로 콘돔 사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브로닌 도너기, 1999). 나윤경(2002)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은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평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생물학적 욕망 뿐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성교육 지침서의 내용들이 성차별적 지식을 유포하여 결과적으로 젠더차별적 남녀 관계를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비판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성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는 교육인적자원부(2001)나 미국성정보교육학회(SIECUS)의 성교육 영역분류표를 기준으로 성교육 관련 교과서나 지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양적으로 분석하는 방식

6) 『성으로부터의 자유:건강한 성을 위한 지침서』(김종만, 1999), 『중학생을 위한 올바른 성』(이순열, 배병주, 2000), 『사춘기 성』(北村邦夫, 2000), 『소중한 우리들의 성을 위하여』(브로닌 도너기, 1999).

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포괄적인 내용들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는 효과는 있으나, 그러한 내용들이 지도서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서술되어 있는가를 보여주지는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학교 성교육의 목표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성지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성태도와 가치를 형성하여, 바람직한 성행동으로 이끄는 것으로 제시된다(문교부, 1983:7, 교육인적자원부, 2001a:3, 보건복지부, 2000:5,15).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성가치와 태도로 인식되는가의 문제이다. 그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기준이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특정 내용이 어떻게 서술되어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논리적으로 기여하는가를 보아야 한다. 이는 가치 태도와 관련된 영역뿐 아니라 과학적 지식과 관련된 영역에도 해당하는 문제이다. 선행 연구들에서 성교육 교과서와 지도서의 내용이 대부분 생물학적 지식에 치우쳐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되었는데, 그러한 생물학적 지식이 어떠한 사실을 정당화 하는데 사용되는지를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 성교육에서 제공되는 지식은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음란물의 왜곡된 성에 비해 의심할 여지없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모든 지식은 해석자와 제공자에 의해 가공되어 구성된 것이며 과학적 지식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성교육 지도서에서 각 내용 영역들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구성되어 있다. 양적 분석 연구는 이렇게 성교육 지도서의 내용 영역들이 정치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밝히는데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학교 성교육 지도서를 내용 영역이 아닌 하위 목표에 따라 순결 교육 담론,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담론, 평등 교육

담론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교육계의 논의에서 순결 교육과 남녀평등 교육은 학교 성교육의 목표로 계속 강조되어 왔으며, 이러한 시각은 1983년도 지도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서 청소년 성문제가 심각해지고 관련 법과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성폭력 예방 교육과 성매매 예방 교육이 강조되고 지도서의 내용도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에 시대별로 각 담론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변하지 않은 부분들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청소년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성에 대한 논의들

성교육에 대한 입장들은 매우 다양한데, 한국여성개발원(1994)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는 성교육 불필요론이다. 성이란 본능적 행위이므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기·순결 교육론이다. 남녀 생식기와 관련된 생물학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순결을 최고 덕목으로 강조한다. 셋째는 성폭력 예방교육론으로 현실적으로 청소년의 성문제를 방지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넷째는 우호적 성교육론이다. 쾌락이 성의 중요한 요소이며 성교육을 통해 인간의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이해를 부여함으로써 인간 관계를 충실히 발전시켜 인생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성개방 교육론이 있는데, 이것은 성의 쾌락적 요소를 더욱 중시하는 보다 개방적인 관점으로, 청소년도 성욕을 표현하고 성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발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성교육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입장들은 ‘성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청소년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을 보는 시각은 크게 본질주의적 시각과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질주의적 입장은 인간의 성은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능이라고 보

고,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성적 차이를 성기의 구조나 생식 기능의 차이, 성호르몬이나 유전자의 차이 등의 생물학적 요소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강하고 통제하기 힘든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어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반면, 여성들은 성적 욕망이 없으며 수동적이고 수용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남녀의 성적 차이는 생물학적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자연적이고 숙명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본질론적 입장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특징을 문화와 역사를 초월한 숙명으로 여기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빠지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 사회에서 힘이 있는 집단인 남성의 성적 관행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여성의 성적 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존의 억압과 지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사회구성론적 입장은 성이 개인이 처한 사회관계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구성되는 것이라고 본다. 인간의 성적 욕망, 정체성, 성적 관행들은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것이며 사회 관계들에 따라 다르게 생산되는 것이므로, 친족과 가족 체계, 정치 경제적 조직체, 사회적 규제 등과 연관지어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Weeks, 1994). 이러한 입장은 전통 사회와 달라진 현대 여성들의 성적 역할 변화와 성문화 변화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성적 욕망과 실천은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양해지는 것이다. 즉, 성은 가치중립적인 생물학적 영역이 아니라 권력이 작용하는 영역이 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성이라는 단어는 섹스(sex), 젠더(gender), 섹슈얼리티(sexuality)의 세가지로 사용된다. 섹스(sex)란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질론적 관점에서 보는 성을 말한다. 남녀의 성기 구조와 생식 능력의 차이에 따라 남성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주도적인 성적 특성을 가지며 여성은 수동적이고 유약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입장은 성기 중심적이고 이성애 중심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를 정당화하고 지속시킨다.

젠더(gender)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별이라고도 번역되며, 특정 사회에서 인식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의미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학습과 사회화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성을 보는 것은, 본질론적 입장을 넘어서 사회구성론적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성이라는 영역이 권력이 작용하는 영역임을 드러내는데 기여했다.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적 욕망, 성적 정체성, 실천,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구성론적 관점에서 성을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모든 사회적 관계들과의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여성주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성적 억압을 분석하기 위해 젠더와 섹슈얼리티는 함께 고려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을 보는 시각 역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발달론적 입장과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이 그것이다.

발달론적 입장은 인간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성숙하며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발달 단계의 하나라고 본다. 성호르몬의 분비로 나타나는 2차 성징을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의 시작 징표로 보는데, 이 시기의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와 성적 성숙으로 청소년은 질풍노도와 같이 정서가 불안한 시기를 겪게 된다고 설명한다.

한편, 사회구성주의적 입장은 청소년기가 어린이기와 모성과 함께 근대에 들어와 발명된 개념이라고 본다. 원시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청소년기의 개념이 없었으며 아동이 성인이 되려면 특정한 의례로서의 성인식을 거쳐야 했다. 오늘날과 같이 일정 기간의 교육과 훈육이 필요한 시기로 청소년기가 규정되

지는 않았다. 아리에스(Ariès)는 어린이의 개념이 근대에 이르러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6-7세 정도면 장인의 집에 도제로 보내지던 아이들은, 어른과 생활세계가 분리되어있지 않았으며 ‘작은 어른’으로 대해졌다. 어른들의 틈에 끼어 음담패설도 나누고 함께 일했다. 그러다 16-17세기를 전후하여 어린이의 개념이 큰 변화가 생겼는데, 어린이는 순수한 존재여서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보호되어 특별한 방식으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린이를 위한 별도의 방이 생기고 가족관계도 어린이를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어린이를 체계적으로 훈육시키고 교육하기 위한 학교가 발전하고 모성의 역할이 강조되었다(박태호, 2003).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가 당장 노동을 하는 것보다 교육을 받고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가문을 위한 더 나은 삶의 방식으로 여겨지면서 청소년들은 노동시장에서 물러나 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되고, 가족 임금제도가 정착하면서 노동자 계층의 가정들도 점차 중산층의 형태를 따르게 된다. 이렇게 청소년 존재의 성격은 근대 학교 제도의 발달과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을 보는 이러한 상반되는 입장은, 청소년을 어떠한 존재로 볼 것인가,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 권리와 능력을 가진 주체인가 라는 문제와 연결되는 것이다. 생물학적 발달론적 입장에서는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로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므로 성인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구성론적 입장에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것은 근대 이후 사회구조가 그렇게 개편되어 왔기 때문이라며, 후기 청소년들은 성인에 준하는 인지능력과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성인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소비자본주의 사회로 들어서면서 청소년은 다양한 소비활동을 통해 주체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인터넷과 핸드폰은 청소년들에게 기성세대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생활의 공간을 만들어주었으며,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그들만의 놀

이 문화를 만들고 인간 관계를 넓힐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다. 전통 사회의 신분제를 대신하여 근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받았던 학교 졸업장이 더 이상 예전만큼의 성공을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학교를 자발적으로 떠나는 청소년들도 증가하였고, 학교의 규율에 복종하지 않고 두발자유화 운동 등을 통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청소년들도 등장했다. 오늘날 청소년은 더 이상 학생이라는 단일 정체성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소비와 성은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 변화 속에서 청소년을 어떠한 존재로 보는가 하는 문제는 청소년의 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을 성적 권리를 가진 성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이 논의되면서,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개발해주고 관계 맺는 능력을 발달시켜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박광배(2000)는 청소년의 성적 행위능력에 대한 심리학 연구를 인용하며 10대 중반 이후의 청소년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자기결정능력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은주(2003)는 신체적, 성적으로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성숙한 청소년을 도덕적 사회문화적 이유를 들어 무성적인 존재로 여기는 기존 의식은 청소년 성행동 실태와 맞지 않으며 설득력도 없다고 지적한다. 홍봉선(2005)은 성에 대한 가치관과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인권과 자율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청소년의 성을 보는 시각이 변화했음을 지적하며, 남미애(2002)는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청소년이 사회적 관행이나 기성세대의 압력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성 있고 책임성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할 권리”라고 정의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적 발달을 도모하고 각종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을 성적 주체로서 결정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등장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필두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과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청소년 성보호 담론도 강고해져 왔다. 게다가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맥락에 따라 청소년의 성주체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상이하게 사용되기도 하는데, 주로 여성 청소년이 이성교제시 원치 않는 성적 행동을 분명하게 거절하도록 하는 의사소통 교육에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합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2)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의 성교육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청소년을 성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 모두, 젠더 권력관계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박혜림(2006)은 청소년 성보호 담론에서는 여성 청소년의 성의 위험만 강조하며 성주체에 대한 논의에서는 젠더 차이가 무화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성 청소년과 남성 청소년의 성적 경험과 그로 인한 도덕적 낙인은 결코 같지 않으며, 청소년의 성적 관계에는 기성 사회의 젠더차별적인 권력 관계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학교 성교육 내용에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성인지적 관점의 성교육이란 젠더 권력관계를 인식하며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젠더는 성별을 권력관계로 동원하는 총체적인 사회적 원리와 질서로서 계급 등 다른 사회적 구성 원리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한다(변혜정, 2007). 조운 스콧은 젠더를 사회 안에서 남성들과 여성들 간의 관계를 조직하려고 시도하는 사회적 규칙이라고 규정한다(Scott, 2001:215).

청소년의 성은 일차적으로 연령 규범 안에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젠더

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맥락과 차이들(계급, 인종, 성적 지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김백애라 외, 2007).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욕망과 쾌락을 말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과정은 아직도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물며 여성 청소년들의 성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렇게 보호 담론들로 둘러싸놓는 동안 여성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성은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이성교제에서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요구받는 성적 행위의 강도도 높아지고, 젊은 여성의 몸이 자본과 거래되는 현실로 쉽게 들어가기도 한다. 성매매 방지법이 남성의 인권과 행복 추구권에 반한다는 소송이 제기되고, 성판매 여성의 생존권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들은 한국 사회에서 젠더와 섹슈얼리티, 계급이 얽혀 있는 복잡한 현실을 드러낸다. 이 속에서 개개의 여성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은 같지 않다. 가정과 학교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와 대중문화와 사회가 보내는 메시지의 충돌과 모순 속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성적 존재로 자아를 구성해나가고 다양한 관계를 경험한다. 그러한 경험을 하는 것을 막아서 보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학교 성교육은 여성 청소년들이 스스로 힘을 키워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녀 관계에 반영되는 젠더차별적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자신의 미래를 현실적으로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학습자는 성인지적 성교육을 통하여 젠더 관계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성차별 구조에 대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젠더에 의해 자신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느끼고 새로운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한다.

Ⅲ. 성교육 담론의 구성 과정

1. 사회 변화와 성교육 담론의 등장

1) 성문화의 변화

한국 사회에서 성교육 담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20년대로, 당시는 성담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신문과 대중잡지에서 성과 관련된 광고도 급증한 시기였다(Theodore Jun Yoo, 2008:93). 식민지라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근대화로 인한 생활세계의 변화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던져주었다. 여성들은 더 이상 규방에만 갇혀있지 않았으며, 장옷에서 해방되어 남성들과 같은 공간에서 어울리기 시작했다. 단발머리에 짧은 치마, 양산과 구두를 유행시킨 ‘모던걸’과 ‘신여성’들은 시각적 충격을 주면서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대중매체는 본격적으로 성과 연애를 상품화시키기 시작했으며, 구시대와 대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소수의 이야기는 확대 재생산되어 대중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연애라는 새로운 방식의 남녀관계가 유행하면서 정조 문제가 대두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슬픈 연애는 동반 자살인 정사(情死)를 유행시키기도 한다. 신문은 연일 자극적인 이야기를 보도했으며 대중들은 그들의 가십을 소비하며 일부 계층의 새로운 문화 사조로 연애를 이해했다. 성의 상품화와 연애를 즐길 수 있었던 남성들과 달리 잘못 뺨에 빠져 몸을 버린 여성들에겐 여전히 낙인이 찍히기 마련이어서 여성잡지들은 ‘유혹에 걸리지 않는 비결’을 신기도 했는데, 공원을 산보하거나 모르는 남자와 친절하게 말을 하면 안되고, 혼자 길을 떠나거나 카페에

놀러가면 안되며, 저녁과 밤에 여자들끼리 길을 다니면 위험하다, 이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부형에게 알리고 선물을 받으면 단연 거절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싣고 있다.⁷⁾ 이는 여학교에서 학생들을 단속시키는 생활규범이었으며, 정도는 다르지만 이후 성교육 지도서에서도 이성교제시 주의사항으로 비슷하게 반복되는 내용들이다. 여성이 남성과 같은 공간에서 어울리게 되면서 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의 행동을 더욱 통제해야 했던 것이다(권보드래, 2006).

당시 조선의 성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었으며 다양한 성담론들이 넘쳐났다. 각종 성산업이 발달하는 한편, 기생 철폐와 공창 폐지가 주장되기도 하였다. 한청산(1931:56)은 기생제도는 현대의 가정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때문에 축첩제, 강제결혼, 공창제도와 함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하려면 조선의 현모양처가 교양과 취미에서 기생을 능가해야 한다며, 가정에 섹스압필을 주고, 오락화, 음악화, 사교화 하라고 주장한다. 이는 당시 남성 지식인들이 신여성과 꿈꾸던 스위트 홈의 환상과 다를 바 없지만, 연애의 유행과 함께, 부부간의 성적 문제와 애정이 중요해진 것은 전통사회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의식의 변화였다.

주요한(1931:44)도 당시의 변화하는 조선의 성적 상황을 ‘근본적인 대변혁’을 겪고 있다고 평한다. 남녀칠세부동석은 여자교육의 진전으로 바뀌었으며, 강제 결혼에서 자유 연애로 열녀불사이부에서 개가의 자유로, 일부이지만 맹렬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조선에서는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담론이 만들어지고 소비되었으나, 여성들이 자유를 얻은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가부장제는 여전히 강하게 작동했다. 당시 사범학교나 고등보통학교 이상의 상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성들은 극소수였기에 전문직을 꿈꾸며 유학을 다녀온 신여성들이 지식인으로서 느끼는

7) “유혹에 걸리지 않는 비결”, 『신여성』 제 5권 5호, 1931.6. pp.59-62.

엘리트 의식은 대단했으나, 식민지 조선의 복합적 상황은 그들이 꿈꾸던 삶을 살기 어렵게 했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세계 정세가 개편되면서 국가 개조론이 크게 유행하였고 문화주의, 민중주의, 남녀평등주의 등이 주창되었다. 지식인들은 새로운 사조를 받아들여 근대화, 문명화 한다면 조선을 구할 수 있으리라 여겼고 여학교 설립과 여성 교육을 주장했다(박정애, 2001:53). 그러나 남성 지식인들이 생각한 여성 교육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민족을 발전시킬 미래의 일꾼을 키워낼 ‘개명한 현모양처’에 있었으므로 한계가 명확했다. 직업을 가지더라도 가정이 우선되어야 했고 아내와 어머니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했다.

신여성들이 받은 교육은 그들의 삶을 자아실현으로 이끌어주지 못했으며 기존의 젠더 질서를 위협하는 그들의 삶은 사회적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여성에게 정조를 요구하려면 남성도 정조를 지켜야 한다고 비판하고, 정조는 사회규범으로 강제할 문제가 아닌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취미라고 주장했던 나혜석은, ‘사생활이 문란한 여자’라는 비난 속에 이혼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행려병자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소현숙, 2001:120). 국가를 상실한 식민체제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가족에서 찾았던 남성 지식인들에게 신여성들의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은 가족을 해체시키려는 시도요, 민족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더욱 그 당시 대중들의 분노와 염려를 자아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여학생의 불품행 문제였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 풍기문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는데, 더구나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하는 순결한 몸을 지닌 처녀의 성적 타락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꺾비린내 나는 여학생이 연애 운운하며 별별 추태를 다 부리다가 ‘다 시들은 꽃’이 되어 가정에 들어가니, 그 가정이 잘될 리 없다는 것이다(방인근, 1931:55).

신상우(1931:70)는 『여학생풍기문제개관』이라는 책에서 장장 84페이지에 걸쳐

이 ‘대서특필할 중대 문제’를 다룬다. 지금 조선의 여학생은 남녀평등 문제에 대해 오해해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이 많으며, 연애라는 사상 아래에 정조를 무시하는 경향이 현저하며, 자유 결혼이라는 주의 아래에 인륜대상을 무시하는 경향이 현저하다고 비판한다. 이는 ‘조선의 장래를 위하여 통탄할 일’이므로, 여학생에게 현모양처로서 제 2국민을 생산 양육하여 자신과 국가사회에 큰 영광을 가져오도록 원구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당시에 학교를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여성은 극히 소수였다. 1920년대 초반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재학생 수는 약 1천명이었고, 1930년대 초반에도 그 수는 4~5배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여자의 보통학교 취학률은 도시에서조차 일제강점기 내내 50%를 넘기지 못했고 농촌 지역은 10% 미만이었다(권보드래, 2006:141). 결코 다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 풍기문란 사건들은 신문과 잡지의 단골 메뉴가 되었다. 사회적 비판에 맞서 학교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여학교들은 감옥같은 기숙사 제도를 운영하며 학생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보호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주요섭(1931:52)도 기숙사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당시 하숙옥은 타락의 근거지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여학교 기숙사에서 기혼자와 처녀는 같이 두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성에 관한 것을 접하지 않게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사회적 상황과 학생 풍기문란 문제의 대두, 서구의 성과학의 영향 등으로 성교육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주장되게 된다.

2) 서구 성과학과 성교육 담론의 유입

우리 나라에 서구 의료가 본격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였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음양의 조화가 깨진 상태로 보며 질

병을 환자와 분리시키지 않았던 전통 한의학과 달리, 서구의 근대 의료는 임상 의학과 세균 이론에 따라 질병의 원인을 신체 외부의 객관적 실체에서 찾았다. 의학 지식과 의료적 처치는 환자 전체로부터 국부적 병소로 옮겨졌으며, 체온계, 청진기, 각종 검사를 통해 객관화되고 수량화되어 세포 수준의 병리적 이상으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질병론과 신체관에 힘입어 의사는 ‘과학자’의 이미지를 부여받았고, 근대적 의료의 우수성은 자연과학중 가장 진보한 방면으로 여겨지게 된다. 구한말 많은 지식인들은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근대 의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1885년 최초의 병원인 광혜원이 설립된 이래 선교의료 계통의 서구식 근대 병원의 수가 점차 증가하였다. 일제가 서구의 선교의료를 제국주의의 발판으로 여겨 합방 후 압박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에는 다른 식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격하고 광범위한 근대 의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된다. 1910년대에는 합방에 대한 대중적 반발의 무마를 위해 시혜적 차원의 의료를 많이 시행했으며, 1930년대 이후 총동원체제하에서 한국인들을 노동력과 전투력으로 동원할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인구의 건강에 대한 실질적 관심이 증대되었다(조형근, 2003).

한편, 근대화 과정에서 어린이라는 생물학적 시기가 사회적으로 구성되면서 특별한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부상된다. 서구 사회에서 이러한 양육의 근대적 변형 과정에는 의사, 심리학자, 유아교육학 이론가 등의 전문가 집단과 중산층 이상의 교육받은 주부들, 자본가 기구, 박애주의적 종교단체, 국가 등이 함께 관여했으나, 일제하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사회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의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들이 담론을 형성했다. 1920년대 전반까지는 어린이의 인격과 사회적 권리를 옹호하는 차원의 어린이 담론이 중심적이었으나 192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어린이의 육체적 건강 문제와 과학적 자

녀 양육 담론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육아 위생과 질병, 영양 등에 대한 정보가 급증했으며, 이러한 담론은 애국계몽기 계몽 사상가들의 위생론을 바탕으로 의사 같은 전문가 집단의 참여로 체계화된다. 여기에는 건강한 어린이를 길러냄으로써 미래를 기약하고자 하는 애국적, 민족주의적 관심이 깔려 있었다(김혜경, 2003).

성과 관련된 서구의 과학적 지식이 들어오고 성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변화 과정의 연장선에 놓여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성교육에 대한 담론은, 서구의 발전된 성학과 의학을 접할 수 있었던 지식인들에 의해 과학과 진보의 이름으로 보급되고 구성되었다. 많은 지식인들이 성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성교육은 현대적인 사회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성교육의 내용은 주로 아동기에서 청년기 초로 옮겨가는 15, 6세 정도에 해당하는 ‘춘기발동기(春期發動期)’의 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시기에는 생식기관의 성숙으로 호르몬이 혈액 중에 섞여 순환하면서 육체상 정신상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특징이 ‘성욕의 폭발’이다. 이 시기 남아의 가장 큰 문제는 수음(手淫)으로, 이는 창기의 교접 이상으로 신체발육에 해독을 준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엄한 보호 감독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아동의 손이 책상 밑으로 가지 않도록 선생님이 엄밀히 주의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부모나 형이 감독하고 나쁜 서적을 절대로 주면 안된다. 치료법으로 냉수욕과 운동에 힘쓰게 하고, 그러한 악습이 생명에까지 위험하다는 것을 열심히 아동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이갑수, 1931:9-10).

춘기발동기의 자녀를 둔 부모나 교육자는 극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성욕을 자극할 만한 것을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피로할 만큼 운동을 하도록 권장하고, 잠자리에 들면 곧 자게 하며, 술이나 담배, 기타 자극제를 막아주고, 육류를

많이 섭취하지 못하게 하며, 불량한 친구를 막고, 연애, 자극적인 소설, 연극, 활동 사진을 막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정신이 쉽게 감동되고, 주의력이 흩어지며, 침착한 기운이 없어지고, 들뜨고, 변동하기 쉽고, 고독, 예술욕, 지식욕, 명예심, 호기심, 불안심, 몽상 등의 새로운 정신 현상이 나타난다(김윤경, 1927:16-17). 아동이 부모와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는 것도 춘기발동기의 성욕으로 인한 병적 현상인 것이다.

여성의 경우는 불건전한 남녀교제에서 일방적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성교육을 통해 남성의 생리와 성욕에 대해 배워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또한 월경으로 인한 심리 변화의 문제도 강조되었다. 여성은 월경 주기에 따라 생리적 심리적으로 복잡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월경 며칠 전부터 정신이 흥분되고 대단하지 않은 일에 과민해지고 심하면 병자처럼 되거나 불안과 우울에 싸이게 되고 사고력이 약해지며 게을러지고 화를 잘 내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정도가 다르지만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이는 없으니, 될 수 있는 대로 안정하고 과한 운동이나 자극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지도된다. 특히 여성에게는, 신체 기관과 그 정당한 사용법, 모성 의무의 이해, 월경에 대한 지식, 성의 법칙의 실제적 설명, 생식 작용에 관한 주의, 육아법, 양성간의 애정이 본능일 뿐 아니라 정신적 도덕적으로 인류를 진보하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청소년기의 성은 남녀 각각의 생리에 맞게 적절한 방식으로 훈육되고 통제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것으로 구성되어 갔다.

주요섭(1931:52)은 학생 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동과 청결, 건전한 남녀교제 지도를 제안한다. 남녀교제는 무조건 금하면 도리어 변태적으로 흐르게 되니, 교육당국자는 정당한 사교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학교와 기숙사의 변소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데, 문을 아래 위로 뚫어 감시하고 벽을 에나멜로 발라서 낙서를 지워야 한다고 했다. 춘기발동기

의 위험한 성욕을 통제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감시망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성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는가? 김윤경(1929:31)은 책임을 다하는 가정이 극히 드무니 학교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라고 하면서, 학교 성교육의 범위를 간접적 성교육과 직접적 성교육으로 나눈다. 간접적 성교육은 식물과 동물을 통해 생식과 종족보존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고, 직접적 성교육은 성도덕과 성적 질병, 사람의 일생을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범위에서 생물학, 수신, 가사, 운동체육, 생리위생 등 성적 문제에 관련된 과목을 담임한 교사들이 서로 태도와 의견을 일치시켜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에 성교육 담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대였다. 위험한 춘기발동기의 성욕을 통제해야 한다는 성교육 담론은 ‘성욕을 참지 못하고 능동적인 남성’과 ‘수동적인 여성’에 대한 지식을 재생산하였다. 남아는 위험한 수음의 악습을 막기 위해 주위 환경과 옷차림, 행동과 식습관 등이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여아는 월경과 관련하여 불안하고 복잡한 심리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안정을 취할 것이 권고되었다. 즉 남아는 성욕의 문제가 여아는 재생산과 모성의 문제가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급격한 성적 발달로 정서불안을 겪는 청소년기의 이미지와 함께 이후 성교육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2. 학교 성교육 담론의 구성 과정

학교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2년도이지만, 그 이전에도 각급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성교육을 실시해왔으며 성교육에 대한 교육계의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 왔다. 다양한 성교육 담론들이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학교 성교육 담론으로 정리되어 구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새교육』을 위시한 교육학회지와 중앙교육연구소의 연구 결과 등 교육계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혼란한 사회적 상황과 정결 교육의 필요성 대두

8.15 해방과 뒤이은 6.25 전쟁으로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전쟁 미망인 발생으로 인한 여성의 성적 타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보건사회부의 통계를 보면 1957년 10월 말 전국의 미망인 수는 55만 5,022명으로, 이들의 부양가족의 수는 무려 91만 6,273명에 달했다(이상록, 2001a:124). 국가는 UN의 지원을 받아 미망인이 옷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하도록 수산장(授産場)을 운영하고, 모자원을 설치하여 응급구호를 받아야 하는 부녀자를 수용 보호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교육 수준도 낮고 성별 역할분업의 경계를 넘기도 힘들었던 미망인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식모살이를 하거나 윤락여성이 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라진 모습과 행동으로 향락을 추구하는 경박한 성윤리를 가진 이른바 ‘전후파(戰後派)’ 여성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국가는 그 대표적인 사례인 전쟁 미망인들의 성적 타락과 방종을 우려하며 통제하고자 하였다.

1955년에는 한 혼인빙자간음 사건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 남성의 상대 여성이 70여명에 달했으며, 그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대생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지적이고 정숙해야 할 여대생들이 모르는 남자와 ‘팬스’를 즐기고 자발적으로 육체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은 엄청난 사회적 비난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피고는 1심에서 공무원 사칭만 유죄로 인정되고 혼인빙자 간음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천명되었다(이상록, 2001b:148-149). 전후 혼란한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성 개방적인 서양 풍조의 영향으로 허물어진 여성의 정조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도덕적 성담론을 강하게 뒷받침 해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한편, 해방과 뒤이은 전쟁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학생 범죄의 증가로 학생 풍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이일영, 1955). 학생 풍기 문제는 학교 당국의 지도 소홀을 비난하며 제기되곤 했으나(맹주천, 1953), 청소년이라는 시기의 질풍노도적인 특징을 잘 이해해서 지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져 갔다(이인기, 1954).

청소년의 성교육에 대한 관심은 교육계 뿐 아니라 가정에도 이어진다. ‘춘기 발동’의 생리적 변동을 초래하는 시기는 극히 위험하므로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아동을 감시선도 하며 생활습관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장련필, 1948). 이석락(1954)은 현대 사회는 극장, 판스홀, 카페, 다방 등의 발달로 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쉽다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성교육 지침을 소개한다. 청결에 유의하고, 냉수욕, 독침(獨寢)하는 습성을 권장하고, 자극성 음식은 피하고, 아동 하복에 뚫어진 곳을 주의하라고 설명한다.

1957년 『새교육』은 성교육 문제를 특집 기사로 다루는데, 문교부 편수관, 중등학교장, 교육평론가,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필진은 성교육에 대한 당시 교육계의 입장을 잘 보여준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성교육’에서 ‘정결 교육’으로 용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계승한다는 관점에서, 성 자체의 교육보다도 정결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수남, 1957:109). 정결 교육은 사회적 도덕적 타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차재순, 1957:84-85), 올바른 성교육은 성 지식의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고 보았다(이수남, 1957:114). 성적 결합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고 청소년들은 정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성교육의 최대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이다(왕학수, 1957:95). 성은 생식을 목적

으로 하는 것이니 청소년들은 결혼할 때까지 성행위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김창수, 1957:121).

정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영화, 잡지, 신문, 기타 광고 등 성적 자극이 범람 상태인 현대의 사회적 상황을 들고 있다(현병진, 1957:65). 이는 192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문제 의식이다. 가정 교육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정결 교육을 학교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김창수(1957:119-120)는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줌으로써 청소년의 성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진보주의 교육학자들의 주장이었는데, 성적 타락을 막는 것은 지식이 아닌 성의 윤리성이기에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미국의 사상적 영향 하에 있는 우리 교육계가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하다는 것이다.

정결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2차 성장과 신체변화에 대한 대처법, 남녀교제의 에티켓 등이 언급된다. 남학생에게는 성욕의 억제가 강조되고, 여학생에게는 월경의 처리법과 남성의 생리를 이해해서 정결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강조된다.

여학생에게는 정결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지도가 특히 요구된다. 정결은 내 자신과 결혼 상대자를 위하여, 자손의 건강과 국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다(차재순, 1957:86-87). 또한, 정결을 지키지 않으면 여성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으므로(김창수, 1957:124), 여성에게 남성의 성욕을 지도하여 주의시켜야 한다고 하였다(원홍균, 1957:82).

남녀교제에 있어서는, 성적 문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엄중한 감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원홍균, 1957:81)과, 무조건 금지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공개적인 교제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같이 보인다(차재순, 1957:87). 남녀교제의 에티켓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복장과 태도를 단정히 하고, 분수에 넘치는 선물 교환을 하지 말고, 말투와 행동을 조심하며, 이성 친구는 부모님께 소개하고, 들

만 있을 때는 방문을 열어놓아야 하며, 전화와 편지를 자주 하지 말고, 야간에 같이 외출하면 안된다는 등의 내용이다(현병진, 1957:68). 이러한 주의사항은 이후의 성교육 지도서에서 계속 비슷하게 반복되어 제시된다. 학교에서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교육하기 위해 남녀 협동작업을 시키고, 서로 무시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인다(현병진, 1957:73).

이상의 논의를 통해, 성교육에서 정결 교육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순결의 윤리성이 성교육의 목적으로 더욱 강조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해방 후 전쟁으로 피폐해진 사회 질서와 도덕을 재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대중 문화가 학생들에게 끼치는 영향도 우려되면서 성교육에서 정결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2) 순결 교육 담론의 구성

1964년에 중앙교육연구소는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순결 교육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는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의 성적 성숙의 실태, 고민, 이성문제와 성문제 등에 대한 최초의 실태 조사였다.

실태 조사에서 사춘기 시작의 기준은 몽정과 월경으로 했는데, 여학생은 14세 2개월, 남학생은 14세 10개월이었다. 여학생의 1/4, 남학생의 반 정도는 미리 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무지한 상태에서 겪었다(서봉연, 전광문, 1964a:35-37).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가장 흥미를 갖는 것은 기본적인 성흥미와 남녀교제에 관한 것이었다. 남학생은 성행동, 생식기관 및 2차 성징, 여학생은 생식과정에 흥미를 보였다. 성에 대한 고민은 12세부터 시작해 16세에 최고점에 이르렀으며, 남녀 모두 12~14세까지는 성적 성숙을, 15~16세 이상은 남녀교제와 이성애에 대한 잡념을 고민으로 꼽았다(서봉연, 전광문, 1964b:66-67).

중앙교육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학교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

아졌고, 1966년 문교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순결 교육 지도서를 제작할 것을 중앙교육연구소에 의뢰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정식 교과서로 이용하거나 정식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으므로, 과목의 내용에 적당히 삽입하거나 개인 지도 또는 기타 방법을 이용해야 될 것이라고 한계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김명옥, 1966:49). 성교육을 정식 교과목으로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여긴 것이다.

『새교육』은 1966년 다시 성교육 특집을 싣는다. 성은 인간에게 기본적이고 필연적인 것이므로 일정한 계열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학습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보이며(원홍균, 1966:41), 생물학적 지식 뿐 아니라 남녀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이동식, 1966:45-46). 이를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각각 다른 역할을 가지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된다. 남학생에게는 여성이 ‘어머니’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알려주고, 여학생에게는 중대한 사명을 지고 있는데 자부심을 갖게 하여 남녀간의 역할 혼란과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동식, 1966:45-46).

또한 수음을 예전만큼 심각한 해악으로 여기지 않는 변화가 보인다. 너무 과도하지 않게 지도해야 하며, 야단치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게는 월경 중의 정서불안을 지도해야 한다고 본다. 성주기와 감정의 관계를 알려주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남성의 성충동과 성행동에 대해 교육하여 성적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동식, 1966:46-47). 능동적이고 성욕이 강한 남성과 수동적이고 피해를 입기 쉬운 여성이라는 이러한 스테레오 타입은 계속 반복되며 성교육의 주요 내용과 지도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1968년 중앙교육연구소는 순결 교육 지침서의 내용 체계를 완성한다. 학교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침서이기 때문에 ‘순결 교육’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은 학교 성교육의 지향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성교육에서 성 지식의 측면이 주로 강조되었던 것과 달리 이 지도서는 중

학교 1학년 맨 첫 단원을 ‘인간적 평등 원칙에 대한 남녀관계의 이해’로 시작하고 있다. 국제연합인권선언문과 헌법을 통해 인권의 기본 정신과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고 남녀평등의 문제를 다룬다. 과거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으로 삼종지도, 칠거지악 등의 규범이 있었으나, 오늘날 남녀는 시민적 연대감을 갖고 바람직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남녀평등의 가치가 중시되어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교육적 목표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남녀는 평등한 권리를 갖지만 그 역할은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편은 생계비를 대고 부인은 양육을 책임지는 것’이다. 여자는 월경, 임신, 출산으로 제약을 받으며 보육에도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중앙교육연구소, 1968:47-48). 이러한 설명 방식은 1983년 성교육 지도서에서도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적 입장이 된다.

순결은 여성 중심적 윤리로 설명하고 있다. 남녀의 순결은 어느 사회이든 모두로 하는 가치로서 결혼 전의 남녀는 순결해야 하지만, 특히 여자는 육체적으로 순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중앙교육연구소, 1968:48).

2차 성장에 대한 대처법은 월경과 몽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여성은 신체적 불편과 주기에 따른 심리변화에 주의하라고 한다. ‘남자들에게 눈치 채이지 않는 예법으로’ 될 수 있는 한 남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정신착란적 현상으로 자기도 모르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인다(중앙교육연구소, 1968:44). 기존 성과학에서 보여졌던 월경 주기에 따른 여성의 불안정한 심리변화와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차용했음을 알 수 있다.

몽정에 대한 지도는 청결에 주의하고 성적 자극이 될만한 자극과 환경을 조정하라는 내용들이다. 자위행위에 대해서도 과도하면 좋지 않으나 적당히 하면 해

롭지 않으며,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떤 이상이 생긴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
이니 죄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설명한다(중앙교육연구소, 1968:50).

이성교제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용돈 이상으로 지나치게 낭비하
면 안된다,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하며, 성적인 화제를 꺼내거나 폭력을 사용하면
안된다, 데이트 신청은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되고, 상대를 부모나 지도자에게 소
개해야 한다, 승낙 없이 야외로 놀러가거나 늦게까지 있거나 외박을 하면 안된다,
단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거나 육체적 접촉을 하면 안된다 등의 내용이다.

또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더욱 구체적인 ‘성피해 예방지침’ 을 자세하게 제시
하는데, 이를 남성의 성생리에 대한 지식으로 시작한다. 남자들은 성욕이 강하고
능동적이며 이성과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 대부분이라 성적 희롱이나 가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적 피해를 입기 쉬운 장소로는 전차, 버스, 기차, 극장, 야외, 사람이 드문 거
리나 수풀, 집 등 거의 모든 장소가 제시된다. 성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
인 행동지침은 장소에 따라 다르다(중앙교육연구소, 1968:51-52). 예를 들면 다음
과 같은 행동 지침들이 있다.

<차내나 극장의 경우>

- 큰소리로 웃거나 여기저기 뒤돌아보지 말 것
- 앉을 때 무릎을 벌리거나 무릎을 보이지 않게 할 것
- 번잡한 차내나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
- 가급적이면 혼자서 타거나 들어가지 말 것
- 몸을 너무 들여다보이게 하거나 몸에 닿지 않도록 조심할 것
- 유혹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거나 큰 소리치지말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할 것

<야외나 가도의 경우>

- 길을 묻거나 시간을 묻더라도 용건만을 이야기하고 곧 떠날 것
- 뒤따라 오더라도 절대로 뒤돌아보거나 말을 걸지 말 것
- 절대 혼자 혹은 이성과 단둘이서 야외나 어두운 길목을 걷지 않도록 할 것
- 포켓에 손을 넣거나 교복 이외의 이상한 옷을 입고 나가지 말 것
- 큰소리로 웃거나 큰소리로 떠들면서 걷지 말 것
- 불량하게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다른 길로 피해서 갈 것
- 이성과 같이 가더라도 절대 1대1로 가지 말 것

<가정에서의 경우>

- 다른 남자 (친척 형제일지라도) 와 단둘이서 한방에 있지 말 것
- 같이 있게 되면 문이나 창문을 열고 책상 사이에 떨어져서 앉도록 할 것
- 자기가 있는 방에는 반드시 노크해서 들어오도록 할 것
- 집에 있을 때는 발가벗거나 너무 속이 들여다보이는 복장을 삼갈 것
- 이성과 장난치거나 신체를 만지거나 하지 말 것
- 이성과 오랜 시간을 지나거나 밤늦게 지나거나 하지 말 것
-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방에서 혼자 낮잠 자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이 지침은 내외법이 폐지되어 여성을 남성과 공간적으로 분리시켜 집안에 가두고 보호할 수 없게 된 이래 어디서나 남성들과의 접촉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모든 장소가 여성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여성은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이러한 설명은 성피해를 당하는 것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여성의 책임이라는 논리를 내포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성생리와 감정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으로 뒷받침된다. 남자는 성적인 자극에 민감하며, 언제 어디서든 흥분을 일으키므로 탈선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은 육체적인 접촉으로는 흥분할 수 있지만, 방위력만 키우면 일시적인 흥분은 억제한다는 것이다. 남자가 육욕적인 면에서 성

자극을 받는다면 여자는 정애적인 면에서 성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은 기존의 ‘능동적 남성-수동적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행동과 몸을 단속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낳으며 성교육의 지도지침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들은 이후의 성교육 지도서들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1969년에는 중앙교육연구소의 성교육지도에 관한 교사용 지도지침이 시안으로 발표되게 된다.

중앙교육연구소의 1964년도 조사 이후, 청소년 대상의 실태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이근진, 1970; 장학일, 1970; 천종욱, 하태무, 1975), 외국의 성교육 사례도 소개하면서(권균, 1968; 오형석, 1970; 김영만, 1970; 김동규, 1971), 많은 전문가들이 성교육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다. 이제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렀으며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야기된다. ‘성교육’과 ‘순결 교육’이라는 용어가 섞여서 사용되고, 성교육의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교육의 목적과 성격이 자주 토론된다.

임유숙(1968)은 학교에서 순결 교육을 실시하려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학교의 교사(교도교사, 생물, 가정, 보건, 사회생활, 도덕과 담당교사), 교목, 교의, 심리학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순결 교육을 위한 연구위원회’나 ‘생활지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순결 교육 내용의 시안을 작성하고 지도하면서 결과를 평가, 검토하며 효율적인 지도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학교는 정신 위생 및 사회 위생을 포함하는 심리학에 대한 초보적인 내용을 다룰 수 있어야 하며, 상담심리학자, 사회사업가,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학생상담실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전달이 강조되었던 초기의 논의와 달리, 바람직한 성 윤리의 확립이 더욱 강조되어 갔는데, 이는 당시 진행되던 미국의 성교육 반대운동과도 관계가 있다(이남규, 1969). 1964년 미국에서 성교육을 교육과정에 넣은

지 5년이 지나자, 많은 단체들이 미국 성정보교육위원회(SIECUS)를 공격하며 성교육 반대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성병과 사생아를 걱정해서 실시한 학교 성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성행위 방법을 가르쳐 주고,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고 아동을 비도덕적인 상태로 만든다고 비판한 것이다. 1966년 이래 미국 정부는 가정생활과 성교육에 관한 계획을 보조하기 위해 2백만 달러 이상을 지출해 왔으므로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였다.

하지만 학생들은 성교육이 실시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김원곤(1969)은 서울시내 남녀 중고등학교 학생 1,810명을 조사하였는데, 76.6%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성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75%로, 그 중 53.3%가 학교 교육을 원했다. 32.9%의 학생들이 성 문제로 고민을 느껴보았으며, 성문제에 대해서는 80.2%가 친구에게 묻는다고 하였다.

한편,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정책의 일환으로 가족계획 사업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다. 하지만 순결을 강조해야 할 청소년들에게 피임 지식이 들어가는 것은 극히 꺼려졌기에 학교 교육 내용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논의되었다. 권이혁(1972)은 가족계획은 종합 과학이며 문화 운동이지만 학교교육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는 논란이 많다고 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성교육의 일환으로 인체의 생리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을 가르쳐줄 필요는 있겠지만, 가족계획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다루야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좀더 자세하게 가족계획의 의의와 목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던 가족계획 사업이 성행위 장면과 연관짓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직접적인 처치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많았다. 전광문(1970)은 흔히 청소년의 성문제가 서구 사회의 개방 풍조의 영향이라고 지탄하지만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성모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그 중요한 요인으로

가족계획을 든다. 가족계획 장려 수단으로 수태조절 인식과 피임기술의 지도가 뒤따르게 되며 생식과 육체적 쾌락이 분리되게 되었다. 자연 생식에서 조절 생식으로, 임신 성교에서 피임 성교로의 이러한 변환은 육체적 쾌락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성모랄의 변화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1970년 『새교육』은 ‘개방 사회와 순결 교육’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는데, 성교육의 용어와 성격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다. 성교육과 순결 교육이라는 용어는 반반 정도로 쓰이는데, 성교육이라고 할 경우에는 성에 관한 이해와 기능, 태도를 기르려는 의도가 중점적이고, 순결 교육이라고 할 때는 도덕적인 면을 강조하여 결혼 전의 성행동을 금지하고 일부일처의 성모랄이 강조되어 사용되었다(이근진, 1970). 우리 사회에서는 성교육이라는 말도 순결 교육이라고 할 정도로 성교육의 목적이 성도덕 형성에 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는데(전찬화, 1970), 기술의 발달과 서구 문화의 유입, 가족제도의 변화로 유교적 도덕규범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어려워졌으므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성모랄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된다(전광문, 1970). 전통이 약화되고 재래의 가치관과 성관념이 유지되기 어려워진 오늘날의 상황에서, 성교육을 해야 한다, 이르다는 이야기는 이미 의미가 없으며, 어떠한 체제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준희, 1970).

성교육의 가치 교육 측면을 강조하는 의견도 많이 보인다. 김신일(1970)은 성에 대한 지나친 논의는 오히려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고 경고한다. 성교육은 성지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성에 대한 태도를 가장 우위에 두어야 한다. 김재은(1970)도 순결 교육은 성지식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 교육이며, 성에 대한 태도, 특히 이성에 대한 태도를 건전하게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과학적 지식을 이해시키는 것과 더불어 남녀관계와 결혼의 기반

이 되는 성 모랄을 어떻게 확립시키는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1971년 이화여자대학교 인간발달연구소는 일선 학교에서 활용가능 하도록 현행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맞춘 중고등학교 성교육 지도서를 발행한다. 『성교육』이라는 제목을 채택하였지만, 목표는 과학적 지식 전달뿐 아니라 성도의의 확립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순결은 성교육의 목표의 하나로서, 결혼 전의 육체적 성행위의 금지와 일부일처의 건전한 결혼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결혼해야 하며, 자식을 위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규정 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중고등학생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교를 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한계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가족계획은 문교정책이 되어 각급학교 교육과정에 들어가게 된다. 1974년 문교부는 인구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했고 1978년에는 고등학교, 1979년에는 중학교, 1980년에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가족계획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게 한다. 교육 내용은 섹슈얼리티에 관한 내용을 지우고, 인구와 가족규모에 관한 것만 다루었다. 가족의 수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키고 이상적 가족규모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갖게 하는 것이 교육 목표였다(손애리, 1999:35).

1970년대 후반부터는 순결과 성도덕을 강조하는 성교육과 함께, 소자녀 가치관을 미리 심어줄 수 있는 인구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1960년대까지는 결혼한 남녀를 가족계획 사업 대상으로 했지만, 단산하려는 사람에게 출산 조절을 보급하기보다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부터 인구 문제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인구교육은 피임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섹슈얼리티를 거의 완전히 삭제한 채 경제 발전과 관련지어서 이루어졌다(배은경, 2005).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해 교육계에서는 성교육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내려지고 있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순결 교육을 누가 어떻게 시킬 것인지 범위와 내용의 문제는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김제한, 1974). 관련 교과목인 생물, 윤리, 사회 등에서 해당 내용이 나오면 담당 교사의 가치관과 역량에 따라 다루어지거나, 양호교사, 상담교사가 담당하기도 하는데, 단편적이 되기 쉽고 교과 간의 내용 연결이 잘 안되며 조직적인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훈화나 슬라이드를 사용한 교육을 하거나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마련하거나 질문지를 통해 학생의 실태를 이해하는 학교도 있었다(최종옥, 1978). 성교육에 대한 교육계의 관심이 커져가고, 각 학교들이 나름대로 성교육 문제를 취급하면서, 성교육을 학생생활지도 문제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종환(1971)은 순결 교육이 학생선도와 관련되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교사들은 연애편지만 교환되어도 징계해 왔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어느 선까지 허락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한편, 일반 교과서에 순결 교육에 해당하는 내용이 빈약하고, 학년별 계통이 서있지 않으며, 교과의 본래 목표에 제약되어 교과 안에서는 순결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들도 나오면서 학교에서 순결 교육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을 고민하기 시작한다(이종범, 1975).

이렇게 한국에서 학교 성교육 담론은 성윤리와 순결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다듬어져 갔다. 많은 전문가들은 성교육에서 생식에 관한 지식만이 아니라, 성에 따르는 책임과 성도덕에 대한 관념을 철저히 가르쳐 성이 인간 생활에 주는 의미, 사회윤리적 측면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정일, 1967; 김옥기, 1968; 권오일, 1969). 성교육은 ‘남녀의 인간관계의 학습’이며, ‘순결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교육’이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내는 준비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전광문, 1967).

3. 학교 성교육 변천 과정

학교에서 체계적인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것은 1982년이다. 문교부는 1982년 2학기부터 국민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이르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맞춘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 등 3개 시도 교육연구원에서 개발한 초·중·고등학교별 『성교육 학습지도자료』를 각 학교에 배부해 활용하도록 하였다. 사회에 자극적인 성정보가 범람하는데 비판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가므로 학교에서의 성교육 강화가 절실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자료는 학교급별 교육과정에 맞추어 관련 과목들이 다룰 수 있는 성교육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각 교과에는 그 특성에 따른 수업 방법이 있기 때문에 목표와 내용이 다양하고 개별 학생의 실태를 고려해서 실시되어야 할 성교육을 일정한 패턴이 있는 일반 교과 수업에 반영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오일선, 1982). 1983년에는 문교부가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원에서 발간한 성교육자료를 토대로, 인천직할시 교육위원회, 부산직할시 교육연구원, 전라남도 교육연구원, 경상북도 교육연구원 등에서 개발한 중고등학교 성교육학습지도자료를 참고하여 통합된 『성교육 지도자료』를 제작해서 배포한다.

1982년 1월에 중·고교생의 두발과 복장 자율화 정책이 실시되어 청소년의 외양이 성인과 구분되지 않게 되자 청소년의 이성교제 증가와 탈선이 우려되고 생활지도가 강조되었는데, 공식적인 학교 성교육의 실시도 그러한 맥락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두발·복장 자율화 정책은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획일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화를 정비하기

위해 실시된 조치였다. 이후 학생의 탈선과 사치를 우려하는 쪽과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조치라며 찬성하는 쪽으로 나뉘어져 수많은 교육계의 논의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이훈구, 1982:74-79; 신동호, 1982:9-11; 황철수, 1982:65-68; 장혁표, 1983:78-86; 이성두, 1983:51-56; 임재택, 1983:24-30; 김재은, 1984:18-19). 자율화 조치로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이성교제가 특히 우려되었는데, 1983년 4월 발생한 대구 디스코클럽 화재 사건에 많은 10대 청소년들이 희생된 일은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사회의 대중화, 물질화, 상업주의가 비판되며 유해환경 정비와 마스크와 단체의 정비가 주장되기도 한다(정해수, 1984:3-8).

학교 성교육에 관한 논의는 주로 교육계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 배경에는 청소년 연령층에 속하는 인구 집단에 대한 보호감독과 교육 기능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로 확대되는 근대적 변화와 공교육 제도의 확립이 존재한다. 그러한 논의의 집대성이 1983년도 학교 성교육 지도서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청소년의 성적 환경과 문화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학교가 이러한 문제를 다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청소년을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관련 법과 정책들이 제정되기 시작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은 미래의 시민, 개별 가족의 사적 책임 하에 놓인 피보호자로,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었다. 1987년 청소년 육성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청소년은 복지나 종합적 대책의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다루지 않았고 주로 교육정책에서 관리되었다. 하지만 1990년대를 전후하여 입시교육 체제와 학력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삶을 강하게 규정하였던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모든 청소년의 삶을 포함하지 못하게 되고, 본격적인 소비자본주의 시대의 도래와 인터넷의 발달로 새로운 생활공간들이 열리기 시작했다. 가정과 학교에서 벗어난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 육성정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한다.

청소년의 성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불편한 사안이었다. 일반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기준을 재생산 기능이 가능하게 되는 사춘기로 보기 때문에 청소년의 성은 청소년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미성숙’하다고 여겨지는 청소년의 성적 권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여고생 등교길 출산(1996), 여중생 교실 출산(1996), 중고생 포르노비디오 제작 유통(1997), 영아 살해(1998), 원조 교제(1998) 등 1990년대 중반부터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일련의 사건들은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고, 1997년 청소년보호법과 2000년 청소년성보호법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청소년 보호정책이 마련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청소년 보호정책은 주로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여기서 ‘유해’의 의미는 음란성, 선정성 등 ‘성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 과정에는 1980년대 말부터 대중문화 매체들을 모니터링 해오면서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운동을 해온 보수적 시민단체의 역할이 컸다. 청소년보호법 이전에도 청소년 규제 법률은 20여개나 되고 매체별 심의기구도 있었지만, 규제 연령과 범위 등이 산재되어 유해환경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1996년 초부터 기존의 법률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논의가 이루어졌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생활환경을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과 유해매체물의 규제를 핵심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는데, 유해매체물 규제를 핵심으로 하고 그 외 유해한 약물, 업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정리된다. 청소년보호법은 1997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이 법을 근거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화체육부 산하에 만들어졌으며 1998년 2월에 국무총리소속 기관으로 재발족하였다. 이에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기구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로 나뉘어서 전자는 청소년 기본법 하에 육성

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후자는 보호업무를 맡게 되었다. 청소년 보호정책은 원래 청소년 육성정책의 일부였고 인권 문제와 충돌할 소지가 많아 신중히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이지만, 결과적으로 보호정책이 육성정책을 압도하는 구조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청소년 성보호법은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사회적 일탈행위와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규제 미비로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하에 제정되게 되었다. 이는 매우 신속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데, 1999년 11월 4일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101인이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다음날인 11월 5일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130인이 청소년 보호법 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두 법률안 모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 두 법안은 11월 23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되고 12월 10일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동 위원회는 12월 27일 위원회 단일 법률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 2월 3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신속하게 마련된 이 법은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처벌, 피해 청소년의 선도과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1990년대 후반에 10대 성매매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성매매 반대 운동은 이전의 성매매 반대 운동과 달리 성매매 관련 운동단체나 여성운동단체가 아닌, 국가의 청소년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여성단체들은 청소년 성매매라는 사안의 독특성을 고려해 청소년 보호론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다. 성인 여성의 성매매와 달리 피해자의 자발성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가부장적 남성 문화와 성상품화를 문제제기 하고 십대 여성의 성을

착취하는 남성 성인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자발성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여성 청소년의 성을 피해자화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확실히 규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나뉘어져 육성과 보호로 이분화되어 있던 청소년정책 집행기구가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보호의 대상’ 으로서보다 ‘주체’ 로서의 청소년이 강조되게 되었지만, 무엇보다 ‘성적인 문제’ 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했다.

7차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은 더욱 강조되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0년을 ‘성교육 원년의 해’ 로 지정하고 학교 성교육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2001년에는 ‘학교 성교육 활성화 지침’ 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달하여, 학교별로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연간 10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⁸⁾ 지도지침에 따른 이행 실태를 매년 집계해 왔다(고영규, 2007). 또한 성폭력특별법(1994), 남녀차별금지법(1999), 성매매방지법(2004) 등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2시간)과 성매매 예방교육(1시간)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7년 12월에는 학교보건법이 개정되어(법률 제8678호) 2009년 3월부터 성교육을 포함한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되게 되었다. 초등학교에서는 2009학년도부터 5, 6학년에서 학년별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각각 연간 17시간 이상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중학교에서는 2009학년도에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개 학년에서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는 교과재량활동 시간에 선택과목으로 ‘보건’ 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고등학교에서는 2009학년도에는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2010학년도부터 교양선택과목으로 ‘보건’ 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8) 학교 실정에 맞도록 성교육 전문 교사(보건교사, 가정, 생물, 윤리 등 관련 교과목 담당 교사)를 지정하고, 성교육 협력 교사(창의적재량활동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협력적으로 운영한다.

된다.⁹⁾ 정규 교과 안에서 체계적으로 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보건 교육에서 건강, 질병,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함께 다루게 되면서 성교육의 내용이 축소되거나 지나치게 건강 교육 쪽으로 치우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9) 교육과학기술부 부처뉴스 <http://mest.korea.kr/gonews>, 2008. 9.11

IV. 성교육 지도서 내용 분석 결과

1. 순결 교육 담론

1) 여성 순결 교육

성교육 지도서에서 순결의 윤리적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점점 감소해왔다. 순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3년도 지도서는 남녀 평등적인 순결 윤리를 제시하기 위해 ‘정결’이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한다.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 정결은 남녀 모두에게 결혼 전후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윤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순결을 잃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성들에게 불리하다는 설명이 이어진다. 아직까지 동양에서 혼전 순결은 여성에게 보다 엄격하게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문교부, 1983:86).

1993년도 지도서는 순결을 결혼 전 성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로 남녀 모두에게 요구되는 윤리라고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설명한다(교육부, 1993b:45). 그러나 상대방이 순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혼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나 임신으로 학업을 그만두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설명은 순결이 주로 여성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순결을 잃으면 정신적 충격, 후회, 분노 등의 고통이 상당하므로 너무 힘들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여성이 신경정신과로 들어가고 있는 <삽화>도 제시한다(교육부, 1993b:49). 하지만 1983년도 지도서와 비교해서 순결과 관련된 분량이 상당히 줄었으며 설명이 간단해졌다.

이렇게 순결의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설명 방식은 2001년도 지도서부터 바뀌게 된다.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며 중학생의 수준에서 허용될 수 있는 이성간의 성적 행동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교사용 참고자료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랑과 성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결혼 제도 안에서이므로,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사랑에 성이 개입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190). 중학생보다 연령이 높아지는 고등학교 지도서에서는 결혼 제도 안에서의 성이 더 강조된다. ‘혼전 순결에 대한 바른 태도’를 정립할 것이 학습목표로 제시되고, 우리 사회에서 혼전 관계와 혼외 관계는 금기시 되고 있다고 분명히 설명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b:168).

2008년도 지도서는 순결의 윤리적 가치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지도서 전체에서 ‘순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이 총 5번에 불과하며, 그것도 윤리적 측면보다 ‘잘못된 성지식’과 관련된 설명들이 대부분이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 31, 60, 79, 107).

순결에 대한 설명 방식이 변하면서, 처녀막에 대한 설명도 바뀌게 된다. 1983년도 지도서에서 처녀막은 첫 번째 성행위로 파열되어 다시는 재생이 불가능한 ‘얇은 점막’으로 묘사되었다.

질강과 통하는 질구가 있고 그 주위에 얇은 점막으로 된 처녀막이 있다. 이 막은 성행위 또는 외력에 의하여 쉽게 파열되어 흔적만 남게 된다(문교부, 1983:134).

여성의 경우 첫 번 성교로 처녀막이 파열되며 이 파괴된 처녀막은 영원히 재생되지 않는다(문교부, 1983:80).

1983년도 지도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처녀막 재생 수술을 비난하는데, 수술로

재생시킨 처녀막은 본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운동으로 처녀막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성교에 의한 것과 그 ‘자세면에서’ 다르다고 강조한다. 처녀막을 여성의 순결과 신뢰의 증표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설명 방식은 여성의 혼전 성행위를 통제하는 강력한 기제로 작동해 왔으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남성의 정복과 소유의 이미지를 재생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1993년도 지도서부터 바뀌게 된다. 여전히 처녀막을 ‘질 입구에 있는 얇은 점막’이라고 묘사하긴 하지만, 모양과 크기가 사람에 따라 다르며 첫 번 성교할 때 반드시 파열되는 것이 아니므로 순결과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한다.

처녀막의 모양이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사람에 따라서 막에 구멍이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작은 구멍이 여러개 뚫려 있는 사람도 있으며 드물게는 막이 폐쇄된 것도 있고 처녀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처녀막은 처음 성교할 때 파열된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어려서 자전거를 타거나 심한 운동으로 인해 그 이전에 파열되기도 한다. 따라서 처녀막이 있느냐 없느냐로 처녀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처녀막이라는 용어 자체도 여성만의 순결을 강조하는데서 나온 말로써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교육부, 1993a:21-22).

또한, 처녀막이 파열되는 증거로 성행위 때 소량의 피가 나온다는 속설은 분명하지 않은 것이며 결혼 첫날 처녀막이 터지지 않으면 처녀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001년도 지도서는 처녀막을 ‘주름진 근육 조직’이라 묘사한다. ‘얇은 막’과 ‘주름진 근육 조직’은 신체적인 안전감에 와닿는 느낌부터가 다르다.

치녀막은 창호지처럼 생긴 막이 아니라 질 입구에 있는 근육 조직이다. 치녀막의 모양이나 크기는 사람마다 다르다. 대개 치녀막에는 손가락이 통과할 정도의 작은 구멍이 있어 월경혈이 흘러나올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구멍이 크게 뚫린 것도 있고 치녀막이 없는 경우도 있다. 첫번째 성관계에 의해 손상되어 혈흔이 생기는 경우는 전체 여성의 40-50%에 불과하다. 혈흔은 하혈이나 진한 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붉은빛을 띠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기도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39).

2001년도 지도서는 더욱 진보적인 시각을 보여주는데, 치녀막이 손상되는 것은 남성이 상대 여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행위를 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성행위는 치녀임을 확인하는 소유와 정복의 의식이 아니라 최고의 친밀감과 서로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치녀막에 대한 논란은 성행위가 남녀 공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치녀성의 개념을 여성의 육체에만 적용시키는 성문화의 이중규범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55).

2008년도 지도서는 치녀막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며, ‘청소년이 잘못 알기 쉬운 성지식’에서 치녀막과 순결을 관련짓는 것은 잘못이라고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친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60, 107).

이렇게 순결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점점 감소했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성행위는 통제된다. 다만 순결보다 청소년의 성교가 초래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험과 현실적 문제들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명 방식이 변화하게 된다.

혼전 임신과 그로 인한 낙태 및 미혼모 문제는 여성의 몸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교육은 주로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따라서 이것은 피임지식을 어떻게 전달해왔는가의 문제와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피임과 낙태에 대한 내용은 후기 지도서로 올수록 태아 생명윤리 담론이

강화되어 설명된다.

1983년도 지도서에서 임신중절에 관한 내용은 고등학교 3학년에서 결혼과 가족 파트를 다룬 후 가족계획에서 다루어지는데 내용상 ‘행실을 잘못된 처녀의 윤리적 문제’의 분위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 태아의 생명과 미혼모의 문제도 지도상의 유의사항에서 “책임질 수 없는 태아를 갖지 않도록 미혼모의 예를 들어 예방한다”고 간단히만 언급된다. 합법적인 부부도 인공임신중절로 태아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신의 건강과 윤리 범주 안에서 알맞은 피임방법을 지혜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문교부, 1983:12).

1993년도 지도서에서는 중학교의 맨 마지막 단원인 ‘임신과 출산’에서 임신과 분만 다음에 피임과 낙태를 다룬다. 고등학교 지도서에서는 맨 마지막 단원인 ‘결혼과 성’에서 피임과 가족계획 문제를 다룬다. 가족계획은 인구 문제와 상관없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 계획하여 자녀를 갖는 방법이라고 설명된다. 또한 피임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가져서 임신이 되어 미혼모가 되지 않기 위해 상식적으로 필요한 지식이라고 설명한다(교육부, 1993a:121).

1993년도 지도서부터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게 강조되어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인공임신중절은 ‘뱃속의 태아를 도중에서 없애버리는’ 것으로 설명되며, “태아 역시 이미 사람이라고 본다면 살인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병원의 의사가 가위를 들고 있다가 뱃속의 아기가 ‘중절반대’라 쓰여진 피켓을 들고 항의하자 놀라는 <삽화>와, 결혼 전의 남녀가 임신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삽화>도 제시한다(교육부, 1993a:120-126). 축복받지 못할 아이를 임신하면 안되기에 성관계는 결혼을 한 부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지켜야만 하는 윤리규범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한다.

2001년도 지도서에서는 ‘신체 발달과 성심리 발달’ 단원에서 생식기 구조와 2차 성징을 다룬 후 임신과 출산을 다루면서, 피임과 낙태 문제를 ‘태아의 생명권’과

함께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신체 및 심리발달’ 단원의 ‘성건강’ 파트에서 임신과 피임을 성관련 질병, 이상 성행동과 함께 다룬다.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도안에는 17세의 낙태부와 16세의 낙태모를 피고로 한 모의재판 형식의 수업이 예시되어 있다. 그런데 미혼모는 있어도 미혼부는 없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기혼여성의 낙태문제까지 언급하면서도, 결국은 낙태부모가 “죽은 아기에게 미안하다,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울며 비는 것으로 결말을 내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87-93). “낙태는 인간 중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를 가장 강한 자들이 편의에 따라 살해하는 행위”라는 정리는, 논의의 핵심이 임신의 주체인 여성보다 태아의 생명담론 쪽으로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존 지도서들이 피임을 결혼과 부부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하던 것과 달리, 2001년도 지도서는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지도안에서 피임을 다루며 건강한 남녀의 성관계에서 임신을 피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부모나 아기에게 모두 불행이며 결혼하지 않은 남녀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피임법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질외 사정법과 월경주기법의 위험성과 먹는 피임약이 부적합한 경우와 콘돔을 사용할 때 주의점도 설명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77-78).

2001년도 고등학교 지도서에서도 피임은 임신과 함께 다뤄진다. <학습목표>에서는, “피임을 하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인식하게 하여 10대 임신과 미혼모와 미혼부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b:89).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성교육이 임신과 피임이라는 2000년도의 조사결과도 인용한다. 피임 지식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현실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피임의 목적을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책임지면서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이

라고 설명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b:103). 청소년 피임 교육에서 ‘즐거움’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진보된 설명이다. 특히 피임에 실패하는 이유로 피임에 대한 남성의 이중성, 이기심, 책임 의식의 부재를 비판하는 것은 기존의 지도서에서 볼 수 없던 내용이다. 피임 계획까지도 성관계의 과정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책임 있는 성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b:106-108).

2008년도 지도서에서는 성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러한 시각은 보이지 않으며 청소년 시기에 알맞은 성윤리와 행동을 강조한다. 중학교 2학년에서 피임 교육은 ‘생명존중 교육’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55-58).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여자 선생님이 피임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만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피임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임은 여러분이 성인이 된 후 필요에 의해 해야 할 방법이란 것을 짚고 넘어갑시다”라고 시작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b:28). 임신중절 수술은 ‘태아를 죽이는 수술’이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평화롭게 자던 아기가 가위를 피해 다른 쪽으로 헤엄쳐 달아나는 그림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할 때 뱃속의 태아는 살기 위해 이리저리 도망다닌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묘사는 물론 실제 가능한 모습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낙태 장면을 재현하는 것은 낙태 행위에서 태아의 존재만 부각시키고 여성을 소외시킴으로써 그러한 상황을 유발시킨 맥락과 상대 남성의 존재도 비가시화 시키는 것이다.

2008년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는 ‘태아에게 생명을’이라는 소제목으로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온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b:58). 임신인 것 같다는 여학생의 말에 남학생이 “병원 가서 수술하라”고 말하는 <만화>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러한 반응이 일반적인 남성들의 반응이라고 여기게 할 위험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지도서에서는 임신중절 수술의 법적 문제와 부작용, 위험에

대한 설명은 중학교 지도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되지만, 학생들에게 ‘침묵의 절규’, ‘이성의 소멸’ 같은 낙태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109-110). 교과서에는 미혼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42%를 차지한다는 신문 기사와 쓰레기통에 버려진 태아의 시체 사진이 실려 있다. 하지만 중절 수술의 나머지 58%를 왜 기혼 여성이 차지하는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것은 낙태 문제를 단지 미혼 여성 청소년의 성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기제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맥락을 구조적으로 성찰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근원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교육 지도서에서 순결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은 점점 감소해왔지만, 대신 청소년의 성행위가 초래하는 건강상의 위험에 대한 설명과 함께 태아 생명윤리 담론이 강조되어 왔다.

1983년도 지도서는 남녀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과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남녀평등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문교부, 1983:82). 여성의 권력이 강해졌으니 이제 남자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이러한 논리는, 순결이 그 자체의 윤리적인 이유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기보다 불평등한 젠더권력 관계가 반영되어 특히 여성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순결이 윤리적 문제라기보다 정치·경제적 문제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해왔다. 조은(1997)은 정절 이데올로기의 정착이 크게 세 단계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첫째는 고려 말에서 세종조에 이르는 시기로 불교 세력의 거세와 관련하여 여성의 정절을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요구와 규제 조치들이 일어났었다. 둘째는 성종 16년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의 성립을 둘러싸고 일어났으며, 셋째는 중종 이후 사림과 집권을 계기로 심화된 유교 이데올로기 강화의 시기에 일어났다. 여성에게 도덕윤리로서 정절은 정치경제적 이유로

요구되었으며 특히 조선 사회에서 이는 신분제와 맞물려 공고하게 작동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낙태를 설명하는 방식에도 드러난다. 임신중절 수술은 후기 지도서로 갈수록 ‘살인 행위’로 묘사되는데, 이러한 설명 방식은 1993년도 지도서 이후부터 등장한 것이다. 1983년도 지도서에서는 청소년 성행위가 초래하는 건강상의 위험이나 피임과 낙태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적게 등장하였다. 1960~70년대에 국가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던 가족계획 사업은 인구 문제를 국가 경제 성장과 연결시키는 담론을 내세웠으며, 피임 시술이나 낙태 수술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여성의 신체적 건강은 고려하지 않았다. 윤리적 비판 담론이나, 살인이라고 부르는 담론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주로 기혼 여성들이 가족 규모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많이 받았었던 데에는 국가의 전폭적인 기술 지원과 관리 통제 외에도, 이렇게 윤리적 차원이 아닌 경제적 차원에서 사회적 담론을 구성해나갔던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당시에는 아이를 대책 없이 많이 낳는 행위가 지탄받을 만한 행위였다. 1983년도 지도서에는 낙태를 살인으로 보는 담론이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았던데 비해, 후기로 올수록 지도서에서 낙태 문제는 태아의 생명 담론이 가장 전면으로 등장한다. 이는 순결과 낙태 관련 담론이 결국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을 암시한다. 양현아(2005)는 한국의 낙태관련 법에서 미혼여성의 성적 자유와 자기결정권, 재생산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낙태죄의 보호 법익은 태아의 생명과 임신부의 신체로 말해지는데 태아의 생명이 주된 법익이고 임부의 신체는 부차적 법익이라는 것이 형법계의 다수설이다. 낙태를 규제하는 법은 여성에게 임신과 모성을 강요하여, 여성이 ‘자기임 selfhood’ 을 성취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신체통합성’에 근본적으로 개입하고 여성이 최소한의 개별화된 존재임을 거부하는 것이다.

한국 여성들은 성교에서 양육조건에 이르기까지 자기 몸과 삶의 조건에 대한 통제권이 부족하며, 그것이 낙태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성의 개방은 여성의 임신 가능성을 높이지만 미혼 여성의 출산과 양육은 철저히 통제되기 때문에 낙태를 통해 해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원치 않는 임신이 되지 않기 위해 피임 교육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피임법이 원리를 중심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교육되지 않는다. 주로 여성 피임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은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일이므로 피임도 여성이 신경써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재생산할 위험이 있다. 게다가 루프 시술, 피임약 복용, 난관결찰술, 임플라논 시술 등은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사용하기 힘든 방법들이다. 하지만 가장 간편한 콘돔의 사용은 강력하게 추천되지 않으며 다른 피임법들과 같은 수준에서 소개되는데 그치고 있다.

1993년도 고등학교 지도서에는 콘돔을 착용하는 순서가 그림으로 자세하게 설명되었는데, 이는 이전과 이후의 지도서들에서 두 번 다시 보이지 않는 획기적인 내용이었으나 남성에게 피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설명되어 있는 파트도 임신이 아닌 성병 파트였는데, 이는 당시가 에이즈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경각심이 높아져 콘돔 사용이 장려되던 시기라는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교육부, 1993b:102).

이렇게 피임 교육을 확실히 하지 않고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설명 방식은, 결국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려면 성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교육 지도서는 성행위의 위험이 있는 이성교제를 부정적으로 다루어왔다. 하지만 오늘날 이성교제는 일부 문제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이 아닌 일상적인 청소년 문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회의 성개방 풍조와 맞물려

친밀함의 표시인 성적 행동의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도서들은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 대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해 왔다.

2)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의 한계

성교육 지도서에서 이성교제는 대부분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다루어져 왔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3년도 지도서는 우리 사회에서 중학생의 이성교제는 시기상조라 본다고 설명한다(문교부, 1983:43). 이성교제에는 상당한 절제와 판단이 필요하며 특히 육체적 교섭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청소년의 육체적 사귀는 진로의 차단기가 되어 그 이상의 발전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성교제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옷차림은 단정하고 깨끗해야 하며, 늦은 시간에 만나거나 오랜 시간 같이 보내는 것은 좋지 않다. 비용은 각자 나누어 부담하고, 부모님 허락 없이 이성 친구의 집을 혼자 방문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신체접촉은 바람직하지 않다(문교부, 1983:76-77).

한편 청소년의 ‘성적 탈선 유형’을 네가지로 분류하는데, 고독과 소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적 유희를 추구하는 ‘맹목적 애정 추구형’, 성적 매력과 이성교제에 호기심과 동경을 갖는 ‘성적 호기심형’, 가정환경이 불량하고 성도덕이 낮아 죄책감 없이 불순행위를 하는 ‘성적 방종형’, 가출하여 집단을 형성하고 혼숙과 윤간을 일삼는 불량화·폭력집단화된 ‘유희집단형’이다(문교부, 1983:64). 이는 이성교제를 청소년 일탈과 연결짓는 시각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맹목적 애정 추구형 여성은 상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성행위를 분별없이 받아들이고, 성적 호기심형 여성은 남자를 좋아해 자주 접촉해서 원하지 않아도 강간 피해를 입는다며 성적 피해의 원인을 여성에게 두고 설명한다.

여학생에게 제시하는 다음의 주의사항들에도 성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여성이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는 시각이 드러나 있다(문교부, 1983:167).

- 성실하고 상냥한 태도로 분명하고 솔직한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라.
- 성적 흥미를 조장시킬 만한 환경이나 기회는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며 그런 분위기는 적극 피하라.
- 성적 흥미를 조장시키는 분위기에서는 상대방의 관심을 분산시켜 딴 것으로 바꾸라.
- 밤 늦게 귀가하지 말라.
- 호젓한 곳으로 끌려들어가지 말고 발길을 옮기라.
- 도달해서는 안될 기준점을 미리 정하고 몸으로 접근하려는 남자와는 만남을 재고하라.

이러한 내용은 성적 흥미를 조장시킬 만한 분위기를 환기시켜 남성이 다른 것에 주의를 돌리도록 조절할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성피해를 입기 쉬운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경고하는데 버스, 전철, 영화관 등의 장소에서, 계절적으로 여름에, 시간은 오후 9시 이후를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여성의 일상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성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각을 보여준다(문교부, 1983:63).

1993년도 지도서도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남성과 여성은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성끼리 어울릴 때와는 다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이성과의 만남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건전하고 순수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이성교제를 위한 예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공개된 장소를 이용하고, 옷차림은 학생 신분에 맞게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 너

무 늦게 만나거나 오래 함께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비용은 각자 적절히 부담하고, 부모님의 허락 없이 이성 친구 집을 혼자 방문하거나 초대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다(교육부, 1993a:76-78). 1993년도 지도서부터 성폭력이 별도의 장에서 다루어지면서 이성교제 주의사항이 상대적으로 간단히 제시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1983년도 지도서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도 지도서에서 이성간에 지켜야 할 예절로 제시된 내용도 1993년도 지도서와 비슷하게 장소와 옷차림, 시간,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것들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181).

2008년도 지도서에서 이성교제시 주의사항은 중학교 2학년에서 다룬다. 성적 충동을 억제할 수 없을 경우 성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용돈을 낭비하거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이성교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제시된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건전하고 예의바르게, 개별 만남보다 그룹으로 만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47-48). 기존 지도서보다 많이 간결해졌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같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성교제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많이 간단해져 왔지만 이것은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해 관대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적 변화와 별개로 학교 안에서 이성교제는 여전히 엄격한 통제와 관리 대상인 경우가 많다. 지도서의 이러한 변화는 성폭력 관련 내용으로 많은 부분이 빠져 나가서 에티켓 수준의 내용만 남게 되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 이성교제시 주의사항으로 강조되었던 이전의 논리들이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비판받게 되면서 상당 부분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이성교제 주의사항에는 성적 관계로 진행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1983년도 지도서에서 여학생에게 따로 지도하는 주의사항은 성폭력 예방지침에 가깝다(문교부, 1983:167).

하지만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결과적인 상황이며 거기에 이르지 않으려면 그 전의 성적 행동에 개입해야 한다. 이성교제는 하더라도 원치 않는 수준으로 성적 행동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기 지도서들이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개념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1980년대 말 여성계가 성폭력 문제를 이슈화 하면서 제기된 개념으로, 자신의 몸과 성, 이와 관련된 욕망, 욕구 등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진순, 2002:16).

여성계의 반성폭력 운동의 영향으로 1993년 지도서에는 가부장적 성차별 문화와 이중적 성규범에 대한 비판과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전통적으로 여성다움으로 여겨지던 덕목들인 순종과 성적 무지가 남성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오해를 일으켜 원치 않는 성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여성들은 분명하게 자신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설명되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2001년도 지도서부터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거보다 많은 성적 관계를 맺지만 주체적인 결정에서보다 분위기와 상대방의 의사에 휩쓸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행위가 야기하는 현실적 위험을 자세히 설명하며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거절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2001년도 중학교 지도서는 순간적인 실수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남녀의 성심리 차이를 잘 알고 오해하지 않아야 하며 거절은 명확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미혼모, 낙태, 성폭행 등의 사례들을 비디오로 시청하고 소감을 발표하게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188-189). 구체적으로 바람직한 요청과 거절의 방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상대방이 거절하더라도 존중해주고 받아들일 것, 예·아니오를 확실히 할 것, 거절은 간단하고

정중하고 조용히 할 것, 상대방이 거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호하게 대화를 끝낼 것 등으로 제시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204). 2001년도 고등학교 지도서도 효과적인 거절과 의사소통 기술을 강조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b:186-187).

2008년도 지도서에서는 성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적 의사결정이란 성행동에 있어서 주체적인 의사결정이며, 여기서 주체적이라는 것은 주위 분위기에 휩쓸려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48).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하고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하므로 최선을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청소년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완성 단계이므로 일시적인 충동에 따라 행동하면 안된다고 설명한다.

2008년도 고등학교 1학년 지도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적인 만남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책임성 있게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지도상의 유의점>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기 위해 자기주장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반복연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104). 여기서 자기주장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상대방과 의견이 불일치되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 솔직하고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안돼, 그런 짓은 하고싶지 않아”, “내가 싫다고 했는데도 네가 자꾸 강요해서 나는 화가 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니깐 네가 실제로 날 좋아하는게 아니라 그냥 이용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성적 의사결정 교육은 주로 의사소통 훈련과 명확한 거절 의사 표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의사소통의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주로 여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적 관계가 젠더 권력과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형성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일반적으로 성역할 집중화 현상이 나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성적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이 그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간주되는 여성과 남성을 모방하고자 전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수동성을 여성성으로 여기는 젠더 문화는 성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일상 문화에 반영되어 있다. 대부분의 학교는 여학생들에게 여성스러운 특성을 함양하도록 교육하며 이는 단정하고 깨끗한 외모와 복장, 얌전한 말투와 자세, 행동을 포함한다. 김언정(1999)은 성평등한 관계를 “자신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어느 한쪽이 우위에 서서 통제하며 다른 한쪽의 일방적 헌신이나 성적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관계”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여성 청소년들은 좋은 여자 친구가 되기 위하여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대로 따라주는 수동적인 역할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이 분명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기란 쉽지 않으며, 여성이 남성의 요구를 받아들인으나 아니냐의 문제는 관계의 유지나 단절이냐의 문제와 곧바로 연결된다.

역사적으로 성적 관계는 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과 달리 가부장의 권력이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영역이다. 남녀 관계는 일반적인 인간 관계보다 불평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갈등 해결에 한계를 가진다. 권력을 가진 자가 기꺼이 동의할 경우에만 갈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사소통 교육은 권력을 가진 입장에 있는 남성이 여성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협상 기술을 구사하지 못하고, 권력이 없는 약자인 여성이 위험한 수위에 이르기 전에 거절 표현을 분명히 하는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적인 만남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2008a:104)이라면, 남성이 원하는 것과 여성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 누구의 권리를 관철시키는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게다가

여기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남성은 육욕적 욕구를 여성은 정애적 욕구를 지향하며 청소년기는 남성과 여성의 성욕차가 가장 큰 시기라는 것이 과학적 사실로 제시된다. 따라서 남성이 흥분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절하며 조심할 책임은 여성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에는 이성교제 자체를 금했었지만 오늘날 그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성교제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성교제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여성은 많지 않으며, 그것은 그 여성이 의사소통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남성이 여성의 의견을 존중하는 호의를 보이는 것은 여성이 권력을 가졌을 경우이다.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서 이 권력은 크게 두가지 원인에 기인하는데, 하나는 그 여성이 속한 집단이 힘이 있는 경우이다. 이 경우 남성은 그 여성이 속한 가족 혹은 다른 집단의 남성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러한 시각은 역사적으로 강간을 설명하는 기본 시각이었다. 남성이 여성을 얼마든지 강간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그 여성을 두려워하거나 존중해서라기보다 그 여성이 속해 있는 남성(아버지, 남편 등)의 권력을 두려워해서라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간은 초기에 남성 가부장의 '재산권'을 침해한 문제로 다루어졌으며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조를 가진 여성만 보호 대상이 되었다. 여성계의 반성폭력 운동은 이러한 시각을 비판하여 강간을 정조 침해가 아닌 여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해왔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여성이 자신의 몸과 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근본적인 젠더 갈등은 상당 부분 유지되고 있다.

두 번째로 여성이 관계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은 자신의 여성성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성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은 젊음, 아름다움, 섹시함 같은 성적매력 이외에도, 관계에서 어머니나 아내와 같은 역할을 자처하며

남성에게 감정적 지원과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남성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없는 관계여도 좋다고 유지하는 경우는 여성이 상당한 성적 매력을 가졌을 때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젊고 예쁜 여성은 권력을 가진다’고 여겨지기도 하며(정희진, 2005) 많은 여성들이 기꺼이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이렇게 여성의 성적 매력을 자원화 하여 관계에서 권력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평등한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철저히 남성의 이익에 맞춰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많은 젊은 여성들이 남성과 달리 청년기에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여 경제적 독립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기보다 자신의 여성성을 개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사회와 독자적 개인으로 관계를 맺기 보다 자신이 관계를 맺은 남성들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남성만이 권력을 가지고 선택하는 주체가 되며 여성은 선택받는 남성 욕망의 대상이 될 뿐이다. 성적 매력을 가진 여성은 권력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원하는 남성을 선택한다기보다 더 좋은 조건의 남성들에게 선택받을 확률이 높아질 뿐이다.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이 필요하다고 자각하는 여성들도 많이 늘었지만 대부분의 젊은 여성이 결혼 적령기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여성은 특정 나이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외모 꾸미기는 그저 여성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허영과 욕망 정도로만 여겨지며, 젠더권력 관계의 측면에서 여성의 성과 남성의 경제력이 거래되는 방식 자체가 문제제기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대중문화를 통해 여성의 성적 매력이 권력이 되는 메시지에 익숙하게 되어 남성화된 시선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문제는 거래되는 여성적 자원과 남성적 자원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여성적 자원은 젊고 아름다운 시절에 한

시적인 가치를 가지지만, 남성이 젊은 시절부터 노력으로 획득해 나가는 자원들은 그들이 나이 들어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여성은 무슨 일을 하던지 먼저 성 자체로 인식되지만, 남성은 결코 성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이것이 가부장제 사회의 차별적인 젠더권력 관계인 것이다. 여성적 자원은 여성이 어릴수록 많이 가지게 되며 남성적 자원은 나이를수록 많이 가지게 된다. 따라서 어린 여성과 나이드는 남성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이 성적 자원을 매개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평등한 관계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기술과 거절 표현 교육에만 치중하지 말고, 남녀 관계가 왜 평등하게 되지 않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표면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진정한 협상 능력을 길러주지 못한다. 성적 관계에서의 협상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성적 금기가 적용되는 시기이기에 여성이 거절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성인이 되면 더욱 어려워진다. 사회의 성문화는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임과 임신과 낙태 등 재생산과 관련된 문제는 여성이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로 여겨진다. 남성은 성적 욕망을 분출하는 존재로 여성은 그 욕구를 받아주고 피임을 담당하는 존재로 상징되는 것이다.

정윤지(2008)는 비혼 남녀가 성관계를 맺을 때 콘돔 사용에 대해 어떻게 협상하는가의 문제를 보여준다. 예상과 달리 콘돔 사용에 있어서 협상을 주도하는 것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다. 여기서 '협상'이란 콘돔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남성이 여성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여성의 콘돔 사용 요구는 한두번의 의사표현으로 그칠 뿐 지속적인 설득 과정으로 이어지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콘돔 사용을 싫어했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설득하였으며,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여자 친구의 경우는 대부분 설득되었다.

연구자는 여성들이 결국 이렇게 설득되는 이유를 가부장적 이중규범과 낭만적 연애에서의 ‘좋은 여성’의 가치를 내면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여성들은 경험이 많다고 여겨질까봐 콘돔 사용을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거나, 좋은 여자 친구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남성의 요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경험하고 나서야 바뀌기도 한다.

많은 여성들이 ‘설마 내가 임신할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교육이 사회에 넘쳐나는 사랑과 성의 이미지와 임신을 연결시키는 데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낙태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이 성교육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지만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맥락이기에,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로 들어가기 전에 성적 관계에서 협상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며 이는 남녀 관계에서의 전반적인 협상력을 키워야 가능할 것이다.

친밀한 관계에서 남성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며 따라서 많은 여성들은 결혼을 할 만한 상대방이고 결혼이 보장된 경우라면 성적 관계에 들어가고 아닌 경우라면 관계 자체를 해소시킨다. 하지만 이는 결국 여성만 위험 부담을 지는 전략이다. 남성이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결혼의 해소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경험이 ‘낙인’이 되는 것은 여성들뿐이다.

결국 여성이 평등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성과 관련된 여성 억압을 해소하고 여성이 진정한 성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남성에게 양도하지 않고 스스로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여성의 성적 권리는 경제적 권리라는 물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사회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이 여성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낙태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태아 생명윤리 담론으로 이어지며 순환을 반복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진다. 남성은 빠지

고 여성과 태아만 대립 상태로 남는다. 기든스(Giddens)가 말했듯, 오늘날 재생산 없는 섹스(피임)도 섹스 없는 재생산(시험관 아기)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화적 억압은 그대로이다.

그런데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시 청소년의 성적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게 만든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의 성문제는 젠더권력이 반영되어 발생한다는 차원에서 성인의 성문제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젠더에 민감하게 (gender-sensitive) 청소년 성문제를 발생시키는 권력관계를 성찰해야 하는 것이다.

3) 남녀의 성생리 차이에 대한 지식

공식적 성교육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2차 성장과 신체 변화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 학교들은 많았는데, 이는 성적 성숙기에 접어드는 청소년들을 집단적으로 모아놓은 공간인 학교에서 생활지도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다루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차 성장과 신체 변화는 주로 남성의 사정과 여성의 월경을 중심으로 지도되어왔는데, 그것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구분하는 가장 눈에 띄는 징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성적 변호는 성별화된 의미를 구성한다. 남성 청소년에게 이러한 변화는 욕망과 성충동의 문제로 대두되며 여성 청소년에게는 모성과 재생산 문제가 강조된다.

성교육 지도서에서 남녀의 성생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83년도 지도서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도목표는 각각 다르게 제시된다. 남학생은 성충동의 조절과 해소 방법을 알게 하고 여학생은 생리 현상을 이해시키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다(문교부, 1983:27). 여성의 월경은 순수하게 생리적인 현상인 반면 남자의 사정 현상은

‘성에 눈뜨게’ 하는 것이다. 성욕은 남녀간에 차이가 있고 남성에게는 성충동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여성은 이러한 남성의 특성을 이해해서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문교부, 1983:56-57).

이 시기 남자 청소년에게는 성적 욕망의 관리가 핵심 문제가 된다. 청소년기는 성욕과 성행동 능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데 이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닌 ‘생리적’ 문제이므로 공부와 건전한 운동, 등산, 각종 과외 활동 등으로 적절히 해소하고 승화시키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설명한다. 근대 초기에 보였던 위험한 춘기발동기의 성에 대한 담론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자위행위에 대해서도 관대한 입장을 보인다. 의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니 죄악감을 느낄 필요는 없으며 자극적인 환경을 조정하며 지나치게 빠지지 않도록 하고 청결에 유의하라고 권고한다(문교부, 1983:65-66).

월경에 대해서는 자신의 주기를 미리 알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 불쾌감을 안주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도된다. 192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월경주기에 따른 복잡한 심리 변화에 주의해서 대처하라는 내용도 반복되고 있다(문교부, 1983:27-28). 여학생의 이러한 성숙은 엄마가 되는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남성의 2차 성징을 욕망에만 집중시켜 설명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1983년도 지도서에서 남성 생리와 여성 생리 차이의 핵심은 성충동으로 설명된다. 여자들의 월경 현상은 순전히 생리 현상일 뿐이지만, 남자들의 사정 현상은 쾌감이 따르므로 ‘성행위의 전초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남자들의 성적 욕구는 성기능이 시작된 후 얼마동안 가장 강하게 나타나므로, 10대가 가장 성충동의 남녀차가 심하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설명한다.

성충동은 두가지로 설명하는데, 고환에 축적된 정자를 밖으로 배설하고 싶은 방출 충동과 이성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접촉 충동이다(문교부, 1983:61). 두 충동이 결합해야 비로소 완전한 성충동이 되는데, 남자

들은 이 두가지가 모두 작용하지만 여자는 접촉충동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성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성 섹슈얼리티를 정상적 기준으로 보고 여성은 거기서 결핍된 존재, 욕망을 갖지 않은 존재로 보는 것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자극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여자는 감각적인 성 자극만 주지 않는다면 성 충동에 있어서 문제될 것이 없지만 남자는 시청각적인 자극만으로도 쉽게 성적으로 흥분하게 된다고 한다(문교부, 1983:61-62). 남녀의 성적 욕구의 지향점도 다른데 여성은 정애적, 남성은 육욕적 욕구를 추구한다(문교부, 1983:73-74). 이것은 여성이 본의 아니게 남성을 자극해서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강간 통념의 근거가 되어 가해자를 정당화하는데 활용되어온 설명 방식이다.

1993년도 지도서는 남성의 사정 현상을 미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신호라고 설명한다(교육부, 1993a:27). 이는 기존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벗어난 긍정적 변화라 할 수 있으나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남성의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해로운 것이 아니니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이 적당히 알아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지도한다(교육부, 1993a:34-35). 고등학교 지도서에는 더욱 급진적인 시각도 보이는데, 자위행위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충족할 수 없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성욕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결혼까지 10여년을 기다려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성욕 배출구”라는 것이다(교육부, 1993b:51). 이러한 지도는 남성들이 자신의 성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조절하며 관리하도록 하는 태도를 키워줄 것이다. 여성은 자신의 성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갖도록 지도되지 않는다. 여성의 성은 모성적 가치를 지니므로 훨씬 조심스럽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남녀의 성충동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남성의 사정에 해당하는 여성의 2차 성징이 월경이라고 설명하며, 월경이 사정과 달리

쾌감을 동반하지 않는 점이 바로 남녀의 성의 차이라고 설명한다(교육부, 1993b:4). 하지만 사정과 월경을 같은 차원에서 볼 수는 없다. 사정과 월경은 둘 다 재생산과 연결시켜 설명해야 하는 생리적 현상이고, 성충동은 남녀 모두 가지고 있는 성욕에 기반하여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월경에 대한 지도는 어머니가 되기 위한 준비이니 고통을 이겨내라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기존의 지도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 신체적 통증과 불편함을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예민해지고 우울해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과로나 정신적 긴장을 피하고 잠도 충분히 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삽화>에도 여자 아이가 배와 머리가 아파 찡그린 얼굴로 힘들어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교육부, 1993a:40-41).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남에게 눈치채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항상 여성에게 기본 예절로 교육되어 왔다. 또한 월경을 귀찮고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인류 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일이니 자부심을 가지라고 강조한다. “여성의 고유한 역할은 건강한 생명을 낳아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킬 건강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남성 섹슈얼리티가 욕망과 쾌락에서 구성되는 것과 달리, 여성 섹슈얼리티는 통증과 극기, 남에게의 배려, 모성의 자부심 등의 용어로 점철되어 구성된다.

1993년도 지도서도 남성과 여성의 성욕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한다. 남성의 성욕은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하지만 소녀들은 다분히 환상적이고 로맨틱한 연애 감정에 관심이 크다는 것이다(교육부, 1993b:39). 이러한 차이는 생식기의 차이에 근거한 것으로 여성 생식기가 남성보다 덜 돌출되어 있어서 성욕과 성적 반응,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자극이 남녀간에 다르다고 설명한다(교육부, 1993b:39).

한편, 2001년도 지도서는 “남녀의 신체구조와 기능의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차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남녀의 특징을 전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33). 이는 기존의 지도서와 비교해서 바람직한 변화이다. 호르몬의 차이로 인한 성욕의 남녀 차이도 크게 강조하지 않으며, 남성의 사정에 대한 설명에서도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월경에 대한 설명 방식은 그대로이다. 월경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성적 성숙의 증거라고 설명하면서 몽정은 아버지와 연결시키지 않는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54). 남성의 자위행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지나치지 않게 하며 청결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54).

또한 남녀의 성심리 차이에 대한 설명은 2001년도 지도서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설명한다.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남성들은 쾌감을 자연발생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적극적인 성행동을 하고 싶어하게 되지만 여자들은 그저 같이 있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정도를 원한다는 것이다. 남성은 시각적 자극에 약하고 여성은 신체 접촉에 약하다. 남성의 성욕은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달하며 감정적 애착이 없는 낮은 사람과의 성적 환상이 빈번하고 자극에서 욕구반응까지 진행과정이 빠르지만 여성의 성충동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특정한 이성에게만 성적으로 반응하고 욕구진행 과정이 느리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107-109).

성욕구가 충족된 후의 남녀차도 크다고 지적한다. 남성은 성행위와 사랑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복욕과 흥미 상실을 경험하지만 여성은 성행위와 사랑을 분리하지 않으며 상대 남성에게 집착하고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 여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b:74-75). 따라서 이성교제를 할 때는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일정한 선을 그어야 하며, 여자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고, 남자는 여자의 거절을 내숭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107). 남성의 성욕과 성심리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과학적 사실이라는 미명하에 성관계에 있어서의 남성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2008년도 지도서도 주요 2차 성장을 월경과 사정으로 설명하지만 기존의 지도서와 달리 월경시의 신체적 불편함이나 심리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간단하게만 언급되어 있다. 남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는 주의 사항도 없으며, 환경호르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 월경품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 건강 차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월경의 원리는 여전히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수정란을 보살펴주는 장소로서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 혈액과 분비물이 몸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와있는 <만화>에서, 월경혈은 “우리 아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주려고 모였는데 필요 없어져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라고 말하며 배출되고, 남자는 “언젠가 아기가 생기면 잘 돌봐줘, 난 이만 갈게”라며 눈물을 흘리며 함께 자궁을 떠난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b:10). 임신은 여성의 일생에서 몇번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지만 월경은 성인기의 상당 기간동안 매달 겪는 일이다. 따라서 이렇게 월경을 임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실의 시각에서 재현하는 것은 여성 섹슈얼리티의 1차적 목적을 어머니에만 두는 것이다. 남성의 사정 현상은 남자를 만나지 못해 쓸모없이 낭비되고 죽어가는 것으로 재현되지 않는다.

월경을 생명 창조 과정에 필요한 주요 현상이므로 귀찮고 불편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기존 지도서의 설명도 그대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고유한 역할은 건강한 생명을 낳아 사회와 역사를 발전시킬 건장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설명은 여전히 여성의 가치를 모성과 출산력에 두는 가부장적 시각을 보여준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23-24).

2008년도 지도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성적 욕구, 조절할 수 있어요’라는 단원명으로 남녀의 성적 욕구의 차이에 대해 다룬다. 남자와 여자의 성적 욕구의 차이를 알고 성적 욕구를 조절하고 승화시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 <학습 목표>로

제시되어 있다. 자위행위의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아 주고, 신체 발육 과정에 아무런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니 청결과 뒷처리만 주의하라고 설명한다. 자제하려면 성적 자극과 음란물을 피하고 잠자는 습관을 조절하며, 운동과 학업, 취미 활동에 열중하라고 기존 지도서들과 같은 내용의 조언을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51-52).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와 성반응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도서들과 같은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남자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강한 성적 욕구와 육체적 접촉 욕구를 느끼며 특히 이는 청소년기에 최고조에 이른다. 시각적 자극에 약하고 감정 애착이 없는 낯선 사람과의 성적 환상을 빈번하게 느끼며 자극이 뇌로 전달되면 바로 성교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이에 비해 여자는 접촉 욕구나 성적 욕구는 늦게 나타나고 로맨틱한 연애 감정에 관심이 크고 성충동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며, 특정한 이성에게만 성적으로 끌린다. 성욕구를 충족시킨 후의 반응도 남녀가 다르다. 남자는 성행위와 사랑은 별개라 생각하고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복욕, 만족감을 느낀 뒤 무책임하게 흥미를 상실한다. 하지만 여성은 성행위와 사랑을 분리하지 않고 성관계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라 느끼지만, 임신과 육아 등과 관련한 사회적 제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51-52). 청소년기의 남성과 여성의 성욕은 큰 차이가 있으며 남성은 성관계를 맺으면 곧 마음이 식어버리고 여성만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된다는 설명은, 결국 여성이 알아서 자기 몸을 지키며 조심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것이 없다. 고등학교 1학년 지도서에서 제시되는, 이성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상담에 대한 대답도 이러한 기존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 남자들이 “결혼할 건데 무슨 문제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여자들로 하여금 그 남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신호인데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믿어버리게 된다며, 남자는 성관계 후에는 ‘자기 몸 관리도 못하는 여자’라고 쉽게 여기게 되고

여자는 더욱 집착하게 되어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8a:107).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2차 성징과 신체변화에 대한 내용은 사정과 월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남성 섹슈얼리티에서는 욕망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서는 모성과 재생산이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전체 지도서에서 변화 없이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 섹슈얼리티에서 모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수정과 임신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1983년도 지도서는 여성의 몸을 태아를 위한 ‘9개월간의 숙소’라고 표현한다. 태아는 모체로부터 영양을 섭취하며 자라는 대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감정인 모성애에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그 부채를 100배로 갚아준다는 것이다(문교부, 1983:155-156). 또한 249페이지의 학습지도안에는 “화분에 심어져 있는 식물을 힘주어 뽑아보는 일을 가상하여 태아와 모체 관계를 설명한다”고 나와 있다. ‘태아가 식물이라면 모체는 흙’이라는 것이다. 1993년도 지도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수정란은 수정이 된 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자궁을 향해 내려간다. 자궁으로 내려온 수정란은 다시 2, 3일 걸려 자궁 내에서 어디에 자리를 잡을 건지를 정하게 되는데 ‘앗기에’ 가장 잘 맞는 환경이라야 한다. 이렇게 해매다 한 곳을 찾아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것이 착상이라고 설명한다(교육부, 1993b:114). 이러한 묘사는 수정란을 능동적인 생명체로 여성의 몸은 아기를 위한 방으로 느껴지게 하는 설명이다.

남성과 여성의 성욕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청소년기에 가장 크게 벌어진다는 설명은 과학적 지식이라는 미명하에 남성의 성충동에 관대한 문화를 형성하고 여성이 성피해를 유발했다는 잘못된 통념을 재생산하며, 성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로 여성에게 몸조심을 시키는 근거가 된다.

4) 순결 교육의 한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순결 교육 담론은 윤리적 차원보다 현실적 차원으로 설명 방식이 많이 바뀌었으나, 형식적인 피임 교육, 태아 생명윤리 담론의 강화, 의사소통 중심의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은 남녀 관계에서 여성 청소년이 권력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순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는 않지만, 여성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교육하지 않는 것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는 여성을 통제하여 성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기존의 방식과 별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성생리에 대한 설명 방식은 1983년도 지도서부터 2008년도 지도서까지 별 변화 없이 이어져 왔는데, 남성과 여성의 성욕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 내용은 과학적 사실로 구성되어 순결 교육 담론을 구조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젠더권력 문제를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환원시키고 있다. 이는 성폭력을 정당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생리적 기능 차이 이외의 성욕의 차이는 성차보다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이 더 강조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남성과 여성의 성욕의 차이가 일생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라는 설명은 남성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 청소년 가해자들이 성폭력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럴만한’ 상황이며 ‘그래도 될’ 상대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지 넘치는 성충동 때문만은 아니다(권수현, 2001). 젠더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남성 청소년에게 더욱 필요하며 그들이 내면화한 가부장적 이중규범을 어떻게 바꿔주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순결 교육 담론 내용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 순결 교육 담론 내용의 변화

	1983	1993	2001	2008
순결	*정결 : 결혼 전후, 남녀 모두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더욱 엄격	* 순결 : 남녀 모두 →현실적으로 여성에게 더욱 중요 * 청소년 성교의 문제 (낙태,미혼모)	* 순결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음. * 청소년 성교의 문제(낙태,미혼모)	* 순결의 윤리적 가치 거의 언급하지 않음. * 청소년 성교의 문제(낙태,미혼모)
	* 처녀막 : 얇은 막, 1회성,재생불가능성	* 처녀막 : 다양한 모양, 순결과 연결시키지 않음	* 처녀막 : 주름진 근육조직, 순결과 연결시키지 않음	* 처녀막 : 순결과 연결시키지 않음
2차성징	*남성 : 사정-성욕 →조절, 해소법 *여성 : 월경-모성 →위생, 에티켓, 심리변화 주의	*남성 : 사정-성욕 →조절, 해소법 *여성 : 월경-모성 →위생, 에티켓, 심리변화 주의	*남성 : 사정-성욕 →조절, 해소법 *여성 : 월경-모성 →위생, 에티켓, 심리변화 주의	*남성 : 사정-성욕 →조절, 해소법 *여성 : 월경-모성 →위생, 대안생리용품 소개
이성교제	*이성교제 주의사항 -옷차림,시간,비용, 장소, 행동 * 여성은 남성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	*이성교제 주의사항 -옷차림,시간,비용, 장소, 행동 *여성은 좋고 싫음에 대한 자기주장 훈련 필요	*이성교제 주의사항 -옷차림,시간,비용, 장소, 행동 *성적자기결정권 : 의사소통방법, 거절의 기술	*이성교제 주의사항 -옷차림,시간,비용, 장소, 행동 *성적자기결정권 : 의사소통방법, 거절의 기술
낙태	*윤리적 문제 강조하지 않음	*태아 생명 강조	*태아 생명 강조	*태아 생명 강조
	*피임,낙태-결혼,부부, 가족 파트	*피임,낙태-결혼,부부,가족 파트 →피임은 미혼모가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지식	*피임,낙태-결혼,가족 파트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다룸 →피임은 건강한 남녀의 성관계에서 임신 피하려는 목적	*피임,낙태-결혼,가족 파트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다룸 →피임은 생명윤리교육
성생리	*남녀 성욕, 성심리 큰 차이 강조 -남성:시각자극, 육욕적 욕구 -여성:접촉자극, 정애적 욕구	*남녀 성욕, 성심리 큰 차이 강조 -남성:시각자극, 육욕적 욕구 -여성:접촉자극, 정애적 욕구	*남녀 성욕, 성심리 큰 차이 강조 -남성:시각자극, 육욕적 욕구 -여성:접촉자극, 정애적 욕구	*남녀 성욕, 성심리 큰 차이 강조 -남성:시각자극, 육욕적 욕구 -여성:접촉자극, 정애적 욕구

순결의 윤리적 가치를 처녀막과 연결시켜 강조하는 설명은 줄었지만 대신 청소년 성교로 인해 여성의 몸에 일어나는 위험과 현실적 문제들이 강조되고 태아 생명윤리가 강조된다. 이성교제시 주의사항도 계속 지도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은 의사소통 훈련과 거절의 의사표현을 중심으로 교육된다. 성교육 지도서의 내용에서 변화 없이 반복되어온 내용인 남녀의 성생리 차이와 남성의 성욕을 강조하는 내용은 여성 청소년의 성을 통제하는 방식의 성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2. 성폭력 · 성매매 예방 교육 담론

1) 성폭력 예방 교육 담론

성폭력은 1983년도 지도서까지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다가, 1993년도 지도서부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1990년대 들어서 사회를 경악시킨 성폭력 사건이 잇달아 터져나왔는데, 9살 때부터 자신을 12년 동안 성폭행 해온 의붓아버지를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한 사건(1992)과 9살 때 자신을 성폭행 한 이웃집 아저씨를 21년 후 찾아가 살해한 사건(1991) 등은 여성계의 반성폭력 운동과 성폭력특별법의 제정(1994)을 이끌어내었으며, 성폭력 관련 내용이 성교육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전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이루어졌으나 주로 이성교제시 주의사항의 측면에서 다루어졌다. 즉, 사회문제, 범죄로 다루기보다 이성교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적 사고정도로 다루면서 주로 여성을 주의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93년도 지도서는 이종규범과 여성차별적 성문화를 비판하며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한다. 우선 성폭력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라고 정의한다. 나아가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로 인해 받는 행동 제약도 넓은 의미의 성폭력에 포함시킨다.

또한 강간 통념을 비판하는데,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밤늦게 다니고 낮선 남자와 어울리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충분한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가해자는 본능적인 성충동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비교적 관대하게 인정받아 왔다. 1993년도 지도서는 강간은 킁킁한 골목에서 낮선 사람, 정신 이상자에 의해 우연히 일어나며,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불가능하고,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강간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통념들이 성폭력 발생을 증가시킨 요인이라고 비판한다(교육부, 1993a:88).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비도 지적된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경직된 순결관으로 강간을 ‘정조에 관한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고율과 기소율이 낮으며 형량도 미약하여 대부분의 가해자를 방치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성폭력 범죄를 조장하게 되므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교육부, 1993b:69).

우리 사회의 차별적 성문화도 적극적으로 비판된다. 여성에게만 순결을 위함 조심을 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남성에게는 성적인 자유를 허용해 온 이중적인 성규범이 잘못된 성차별 문화를 형성하여 성폭력의 발생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성폭력은 남성의 본능적인 성충동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그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와 여성의 지위를 반영하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라며 남성의 강한 성욕에 대한 기존의 관대한 입장을 비판한다. 남성은 여성을 소유물이나 쾌락을 위한 도구로 보는 사고를 바꿔야 하고, 생리적 우월감에서 벗어나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순하고 순종적인 여성일수록 성폭력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여성은 자신의 성에 대해 ‘주체’가 되는 훈련을 쌓아

야 하고 좋고 싫음에 대한 자기주장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며 기존에 권장되던 여성다운 덕목도 비판한다(교육부, 1993a:97-99).

2001년의 지도서도 성폭력은 강간 뿐 아니라 성적으로 개인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217). 여성이 끝까지 저항해도 성폭력은 가능하며, 특히 부부간에도 동의 없는 성관계는 성폭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222). 성폭력의 피해자는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것은 임시방편일 뿐 완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성차별과 성의 이중 윤리, 왜곡된 성문화와 성교육의 부재, 여성의 낮은 지위와 불평등 사회가 성폭력의 발생 원인이라는 구조적 비판을 한 것이다. 여성은 자신의 성에 '주체'가 되어야 하며 평소에 좋고 싫음에 대한 자기 주장을 명확히 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여성과 남성은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해결방안도 1993년도 지도서와 같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폭력 예방책은 역시 여성이 주의해야 한다고 제시된다. 호신술을 익힐 것이 권장되고, 집에 오는 길을 모르는 곳에서 데이트하면 안되며, 숙박 업소에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남성에게는 여성을 비하하는 성문화에 이의를 제기하고 여성의 거부를 동의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권고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227-229).

2008년도 지도서에서 성폭력은 중요한 주제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반복되어 다루어진다.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가해지는 모든 행위”라고 설명한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다양한 성폭력 유형과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위기

상황과 사후 대처방법을 다룬다. 성폭력은 여성과 약자를 차별하고 상품화하는 문화에서 발생하므로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지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며,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설명한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31-32). 하지만 구체적인 위기 상황 대처법은 기존 지도서의 내용과 비슷하게 제시되어 있다.

중학교 3학년에서는 “가해자들의 주장의 논리적 허점을 토론을 통해 찾아보라”는 활동을 하여 예전에 학습한 기억을 환기시켜 준다. 또한 영화와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가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운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86-87).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성폭력 위기 상황 대처 방법에 대해 모듈별로 토의를 하고 이를 역할극으로 발표한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114-115).

2) 성매매 예방 교육 담론

1983년도 지도서까지 성매매는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다가 1993년도 지도서에서 본격적으로 비판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시한 것은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매매춘 문화였다. ‘매춘’이라는 용어에 성을 파는 여성만 드러나고 성을 사는 남성의 존재는 드러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매매춘을 “여성을 성욕 충족 도구로 격하시켜 하나의 물건으로 간주하여 사고파는 성의 상품화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비판한다. 가부장적 일부일처제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어 정절을 지키며 사유재산을 상속할 적자를 낳아야 했고, 정숙한 여성을 보호하며 남성의 성욕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미명 아래 매춘 제도가 발달한 것이라고 설명한다(교육부, 1993b:78-80). 1993년도 지도서에서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무분별하고 부도덕한 기성세대의 성문화였다. 이에 시청자 모니터 활동, 향락 퇴폐 업소 추방 운동, 건전한 놀이 문화운동, 불매 운동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1980년대 후반부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이러한 활동들은 유해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근간이 되었다.

2001년도 지도서부터는 일명 ‘원조 교제’라고 불린 청소년 성매매가 본격적으로 문제시 된다. 중학교 지도서의 학습지도안은 용돈을 벌기 위해 원조교제를 나섰다가 이웃집 아저씨와 만나게 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역할극과 토론을 하도록 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a:280). 고등학교 지도서에서는 청소년 매매춘의 실태, 특징, 원인과 관계법령을 설명한다. PC통신 등을 이용해서 사적·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며, 용돈을 쉽게 벌기 위한 향락성 아르바이트가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10대를 대상으로 한 소비시장이 급격히 늘어난 것과, 10대 여성들이 자신의 외모와 성이 자원 획득의 조건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 점, 비밀유지가 쉽고 가정과 학교 생활을 유지하며 할 수 있다는 것도 원조교제의 확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관련 법률의 내용도 소개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b:250-256).

2008년도 지도서에서 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반복되며 다루어진다. 중학교 2학년에서는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과정과 성매매 방지법을 다루고(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64-65), 중학교 3학년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후유증, 대책, 10대 청소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고 유행시를 짓거나 포스터, 책, 일기 등을 제작해 발표하도록 한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77-79).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관련법을 알아보고 성매매 유입경로와 대처 방법을 토론하며 성매매 사건 기사에 판결을 내려보는 활동들을 한다(교육인적자원부 외, 2008a:116-117). 1993년도 지도서와 달리 여성 차별적인 성산업과 향락 문화에 대한 사회구조적 비판은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는

다.

3) 젠더 관계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필요성

반성폭력 운동은 우리 사회에서 남성성과 여성성, 섹슈얼리티, 남녀 관계를 규정하는 권력의 문제를 고민하며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가시화 되어오지 못했던 행위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해왔다. 여성계에서 1992년에 ‘성폭력대책에 관한 특별 법안’을 입법청원했을 때의 문제의식은 성폭력에 관한 형법 규정이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상당한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정조 관념을 유지 재생산하고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었으나,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에 그러한 개혁 취지는 상당 부분 반영되지 못했다. 형법 제32장의 규정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의도를 형사특별법에 담기는 힘들었기 때문이다. 성폭력특별법은 이후 여러번의 개정을 거쳤으나 형법의 성폭력 규정을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 한계가 있었다. 1995년 형법 개정에 의하여 성폭력에 관한 형법 제 32장의 제목은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 바뀌었지만, ‘정조’를 대체하는 보호 법익이 무엇인지, 즉 무엇을 침해한 것이 성폭력인지 법조문에 명시되지는 못했다. 최근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대체된 보호법익이라고 해석되는 판례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만 해석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현재의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자유주의 테제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개인이 자신의 섹슈얼리티 형성과 발전에 연관된 문제들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율적 주체임을 천명한다. 그러나 이렇게 추상적 수준에서 자율적인 개인

을 표상하게 되면 성적자기결정권과 침해가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충돌 문제로 축소되어 성폭력의 구조적 측면을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 개인의 성적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권력관계의 맥락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이다(이호중, 2007:6-7).

자유주의 테제의 한계는 성폭력 문제에서 성과 폭력을 구분하며 폭력에 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와 성폭력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체계에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협박과 반항을 곤란하게 함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만족되어야 한다. 폭력의 피해를 입고 힘껏 저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만 동의하지 않은 강간임을 입증받을 수 있는 것은 ‘정숙한 여성은 강간당하지 않는다’, ‘끝까지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강간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왜곡된 강간 통념을 반영하는 해석이라고 비판받아 왔다.¹⁰⁾ 피해자가 가해자와 아는 사이이거나 친밀한 관계일 때 극도로 저항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리적 폭행이 심할수록, 가해자와 모르는 관계일수록, 피해자가 약할수록 성폭력으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다. 반성폭력 운동을 이끌어냈던 충격적 성폭력 사건들은 피해자가 어린이였다는 점에서 생존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통념에서 비껴갈 수 있었고 모성과 부성을 자극하여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자가 성인일 때는 ‘피해자다움’이 입증되어야 한다.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더더욱 피해자로 보이게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아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이 7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성폭력이

10) 형법에서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는 폭행은 4가지로 구분된다. 최광의의 폭행은 대상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협의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최협의의 폭행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도죄와 강간죄의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지 못한다(권수현, 2001). 여성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서 여성의 성적 언어와 행동은 그 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성 욕망의 시각에서 해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인 것과 폭력적인 것은 그렇게 분명히 구별되기 어렵다 이성애 관계에서 여성의 경험은 동의에 의한 성관계나 강간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선택-압력-강제-힘으로 나아가는 연속선상에 존재하게 된다. 여성단체는 데이트 강간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연속선 개념을 정치화하고자 노력해 왔다(변혜정, 2001).

양난미 외(2008)는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강간 통념이 이성교제에서 성적 자기주장과 상대 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다. 여기서 강간 통념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으로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가해자의 성충동을 정당화하는 것, 강간도 성관계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남자 고등학생의 강간통념 수준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양성평등 의식 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에게 강간 통념은 이성 관계에서 상당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강간 통념이 높을수록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양성평등 의식은 강간 통념의 영향에 대한 완충역할을 충분히 하여 성적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켰으나 남학생의 양성평등 의식은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행위를 활발히 하고 있는 남성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문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것은 성행위 자체보다 상대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제는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타락한 여성으로 이분화시켜 관리해 왔는데 이러한 성 위계적인 시각을 남성 청소년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자 친구로 좋아해서 사귀는 아이하고 성관계까지 가는 것은 남성 청소년들도 여러가지 부담을 느낀다. 그들

은 오히려 관계가 결여된 성적 만족을 선호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사귀는 애’와 ‘노는 애’를 구분한다. ‘사귀는 애’는 장기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고 여자 친구의 가정이나 주위 인간 관계도 고려해야 하므로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평판이 나쁘다고 소문난 문란한 ‘노는 애’들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말을 안들으면 술을 먹여서 ‘돌려버려도(윤간)’ 되는, 나의 성적 욕망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다(권수현, 2001). 이러한 사고방식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출 청소년이나 여성 노숙자들이 성폭력의 위협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현실을 설명해준다. 남성은 정숙한 여성과 탕녀 간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지만 이러한 성적 위계질서의 밑에 속해 도덕적 낙인이 찍힌 여성이 경계를 넘어 위로 올라가기에 매우 어렵다.

이성교제가 일반화된 오늘날 청소년들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상적인 의사소통 교육을 넘어서 여성과 남성의 섹슈얼리티의 차이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반성폭력 운동이 제기해온 쟁점들은 우리 사회의 차별적 젠더관계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한편 성매매 문제는 성교육 지도서에서 주로 청소년 성매매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고 있지만, 이 역시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존재 조건과 관계 맺음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와 관련된 서구 여성운동의 입장은 규제주의와 근절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20세기 후반에 더욱 다양하게 나뉘어졌다(이나영, 2005:48). 규제주의(regulationist)는 국가의 허가 하에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때 성매매 종사 여성은 정기적 의료 검진과 거주 제한 등의 규제 대상이 된다. 이는 성매매가 남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필요악이라는 시각에 근거한 것이므로, 여성주의자들은 이중규범을 비판하며 근절주의(abolitionist)의 입장

을 취해 왔다. 한편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여성주의의 입장은 다양하게 나누어졌는데, 크게 자유주의 계약원칙에 입각해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성매매는 남성의 성적 쾌락을 위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가부장제 억압의 토대라는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입장이 대립하여 성노동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개인적 성매매보다 성산업이 사회구조적으로 발달했으므로 중간 매개자의 존재가 중요하다. 양현아(2004)는 성매매방지법이 윤락행위에서 성매매 알선 및 인신매매로 초점을 옮겨감으로써 성매매 문제를 성판매자와 구매자간의 2자 관계가 아니라 ‘중간 매개자’를 행위 주체로 부각시켜 3자 관계구도를 포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나라 여성주의자들은 반인신매매적 입장에서 근절주의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성매매가 개인적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성매매의 폭력성과 총체적인 사회구조적 맥락을 드러내려고 노력해 왔다(이나영, 2005:57).

성매매가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원조교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순결해야 할 여성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은 관련법의 신속한 제정을 이끌어 내고 성매매를 공론화시켰다. 2000년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도 지도서부터는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성교육 내용에 본격적으로 포함되게 되는데, 학생들이 인터넷이나 주간지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광고를 통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과정과 위험, 후유증, 관련 법률과 제도 등을 다룬다.

하지만 성매매 문제와 관련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는 점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 청소년의 성이 상품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가부장제에서 여성의 존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주의는 성매매를 개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가부장적 전제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빈곤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결합되어 구조화된 여성 억압의 총체적 문제로 본다.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에 기초한 이러한 시각은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과 남성에게 사회적 자원에 접근하는 성별화된 방식을 제공하며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자원이 된다고 설명한다. 성이라는 여성의 자원과 돈이라는 남성의 자원의 교환 구조에 대한 논의는 데이트 문화에도 확장시켜 볼 수 있다. 각종 이벤트와 사랑을 증명하는 기념품 등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청소년들의 데이트 문화에서 남성은 주로 비용을 담당하고 여성은 감정적·성적 노동을 담당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분담을 낭만적이고 자연스럽다고 느낀다. 비용을 담당하는 남성은 어느 정도의 성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들은 이것을 남성들이 성욕이 강해서 원래 그런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성매매를 심각한 사회문제로만 다루는 것은 그것이 일상적 이성애 문화와 겹치는 특성들을 비가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교육 지도서에서 성폭력과 성매매 문제는 2001년도 지도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으며, 개념과 문제 현황, 관련 법과 제도, 예방법과 대처방안이 설명되는 형식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성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성애와 성폭력, 성매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성애 관계에 성폭력적 상황과 성매매적 상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유미숙 외(2004)는 교육인적자원부(2001)의 『함께 풀어가는 성이야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했는데, 성적의사결정 능력 부분의 교육 효과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제시된 검사 문항들은 ‘이성 교제시 좋아하다가

싫어지는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성 친구의 일방적인 요구에 부당함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나는 원하지만 상대가 싫다고 하면 여러번 반복해서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한다’, ‘내가 상대방이 좋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등이었다. 이것은 남녀 청소년들이 이성 교제에서 서로 의사 소통하고 원하는 것을 조절하는 협상 능력을 키워주는데 현행 성교육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관계들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젠더권력의 문제를 성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3. 평등 교육 담론

1) 남녀평등에서 양성평등 교육으로

초기의 평등 교육에서는 남녀의 생리적 차이에 근거를 둔 성역할 교육이 강조되었다. 남녀평등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다음 세대를 사회화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한국 사회의 기존 젠더 체계를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남녀관계에 대한 교육적인 논리를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1983년도 지도서는 이 부분에 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성의 개방화로 인한 청소년 성문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양성간의 변화된 가치관을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하느냐의 문제라고 하고 있다(문교부, 1983:100). 평등하고 바람직한 남녀관계에 대한 논리를 세우기 위해 전통 사회에서는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었으며 그 성역할 경계를 넘는 것은 불경스러

운 일이거나 재앙으로까지 취급되었다는 설명으로 시작한다. 이러한 남녀 관계는 근대의 초입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며 여성도 교육을 받고 권리를 찾으려는 서재필의 논설을 소개한다(문교부, 1983:101-102).

해방 후 서구 자유사상이 들어오고 봉건적 인간관계는 약해졌으며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은 전통적 가족구조와 남녀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여성의 취학률과 취업률이 높아지고 전문직과 기술직에도 다수의 여성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여성도 기회가 주어지면 남성만큼 해낼 수 있음을 증명한 것으로 ‘남녀 우열에 대한 가치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파슨스(Parsons)의 이론으로 바람직한 남녀 관계를 정리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남녀의 역할은 점차 접근해 가고 있지만, 남성은 대체로 사물과 기계를 대하는 일을 하고 여성은 인간을 대하는 영역에 종사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다(문교부, 1983:105). 인간의 성장에는 두 가지 다 필요하므로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충적인 개념이며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고 설명한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은 남녀의 다른 역할과 의무를 제시해 주고 실천한다는 것이다.

1983년도 지도서는 남녀평등을 위해서 남녀 역할의 우열관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문교부, 1983:99). 즉, 여성의 역할에도 가치를 부여하고 여성을 남성과 평등한 인간적 존재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라는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에 이르면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교육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우열의 차이는 없고 다만 상호 협력과 조화의 관계가 필요함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인간이 나면서 성기 구조가 다르고, 2차 성징기에 남, 여가 심신의 발달이 다르듯이 그 발현되는 기능에 다름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문교부, 1983:100). 그러면서 “남녀평등 의식과 역할의 차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특히 유

넘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문교부, 1983:97).

1983년도 지도서는 이렇게, 남녀는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역할이 다를 수 밖에 없으며 남녀평등을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에 대한 우열관을 지양하고 서로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면 된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성역할의 내용을 제시하는데 성격이나 심리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남자답다는 것은 직업을 갖고 밖에서 활동하며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것으로, 여자답다는 것은 가사와 양육을 주로 맡으며 문학과 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내용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차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역할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여겨지게 만들 것이며, 학생들이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할 것이다.

하지만 1993년도 지도서부터는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면서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 문화도 적극 비판되기 시작한다. 남성에게는 힘과 용기를 여성에게는 ‘순종’을 최고 덕목으로 교육해왔기 때문에, 남성이 성폭행을 저지르더라도 남성다운 행동으로 여기거나 한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 여겨왔다는 것이다(교육부, 1993a:96).

1993년도 지도서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넘어서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과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결합되어 공존하는 ‘양성성’을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교육부, 1993a:27).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을 통합해서 지닌 사람은 적응을 잘 하고 융통성이 있으며 효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행동하기를 기대하는데 이것을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설명한다(교육부, 1993a:24). 1983년도 지도서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남녀의 다른 역할을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남녀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993년도 지도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남녀의 성차에 이의를 제기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문제제기를 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남자와 여자의 심리적 차이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확실하게 다르다고 확인된 특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경험이나 환경의 차이라고 판명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성차가 나타난다고 보여지는 공간능력과 수리능력, 성취수준, 공격성, 언어능력, 감정표현, 성공 공포, 의존성 등에 대해 설명한다(교육부, 1993a:21-24). 새로운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다. 지도서는 남녀의 공간 능력, 수리 능력, 언어 능력의 차이의 성차를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연구들은 남녀의 차이보다는 같은 성 안에서의 개인들간 차이가 더 크다고 지적하기 때문이다(Tavris, 2002:53). 또한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감정이입적이며 배려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여성이 안전을 위해 남성의 기분을 이해하고 예상하도록 노력하느라 발달한 것이므로 여성적인 기술이 아닌 자기보호의 기술이라는 주장도 있다. ‘여성적’ 특징은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남녀 모두에게 보여진다는 것이다.

2001년도 지도서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평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넘어 양성성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고등학교 지도서에서 성차에 대한 논란은 사회의 성역할 구분이나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명히 지적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1b:259). 성차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정정하는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많이 제시하고, 언어능력, 수학능력, 공간능력, 공격성의 요인들에서만 성차가 발견된다고 설명한다.

2008년도 지도서는 성역할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기존의 지도서와 크게 다른 점이다. 남녀의 심리적 차이와 적성의 차이에 대한 내용도 거의 언급하지 않으며, ‘여성과 남성은 타고난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다, 여자는 남자보다 선

천적으로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소질이 적다, 학교에서 남학생에게 바느질, 요리 등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한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체육 수업과 스포츠 활동은 남학생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 등의 내용이 '잘못된 예'로 제시되어 있다. 기존의 지도서들이 남녀의 심리와 적성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연구결과를 제시했던 것과 비교해 상당히 달라진 점이다.

성교육 지도서 내용에서 평등은 순결과 함께 중요한 가치로 초기부터 다루어져 왔다. 평등의 개념은 남녀평등에서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발전해 왔는데, 1983년도 지도서에서 남녀평등의 개념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역할과 기능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었다. 1993년도 지도서는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남녀차별적 사회문화가 비판되었다. 우리 사회가 여성의 지위가 낮은 불평등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이 주로 성폭력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비판하고 양성성을 지닐 것이 권장되었다. 2001년도 지도서와 2008년도지도서는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양성평등 사회란, 개인이 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개성과 능력, 관심에 따라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일체의 사회활동이 조직되고 운영되는 사회를 말한다.

지도서 내용에 있어 전반적으로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설명과 성역할 교육은 점점 감소해 왔으며, 남녀의 성차와 심리 차이에 대한 과학적 지식도 제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지식들이 남녀의 성별분업을 정당화해왔음을 생각할 때 상당히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추상적 평등 교육의 한계

지도서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는 점점 더 강조되어 왔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성별분업과 노동시장의 성차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양성평등 가치와 법과 제도의 발전된 변화만 제시하는 내용 구성은 자칫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사회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하며, 직장을 가진 많은 여성들은 이중노동에 시달리고, 어머니가 자녀 양육의 일차적 담당자로 여겨진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차별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 왔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인적자본론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인적 자본량이 적어서 생산성이 낮고 따라서 저임금을 받는다고 본다. 여성은 가사노동과 양육을 담당하므로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인적자본에 투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성별분업 관념을 수용하여 노동시장 외부의 성차별적 조건들을 주어진 전제로 가정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상호작용하여 여성의 노동력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을 받는다고 보았다. 여성은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2차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성이 가사노동을 무급으로 전담함으로써 자본가는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¹¹⁾ 성별 직업분리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되어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트만(Hartmann)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하며 여성 노동력을 통제하며 유지된다고 지적한다.

반면에 가정의 가치와 부모 역할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되어 왔다. 2001년도

11) 노동시장은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있는데, 여성과 남성이 일하는 직업이 분리되어 있고, 같은 직업이나 직무 내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숙련도가 낮고 책임과 자율성, 권한이 작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리되어 각각 서로 다른 특성과 원리로 움직인다. 1차 노동시장은 고용 안정성과 승진 사다리, 직업 훈련과 높은 임금이 보장된 시장이며, 2차 노동시장은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으로 저임금에 낮은 기술 수준을 요하며 승진 기회나 직업 훈련의 기회가 거의 없다.

지도서는 모성이 본능인가 사회화의 결과인가 하는 논쟁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논의를 더 끌고 가지 않고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녀양육’이라고 간단히 언급한다. 2008년도 지도서는 ‘결혼과 건강한 가정’이라는 영역을 추가하여 특별히 다루고 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개정되어 각급 학교의 장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게 됨에 따라, 가정폭력 문제도 매 학년 반복해서 다룬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가족입니다’(중1), ‘부모됨이란’(중2), ‘우리 가족 행복의 열쇠-대화’(중2), ‘부부가 함께 하는 아이 사랑’(중3), ‘함께 하는 가정생활’(고1) 등의 단원이 모두 가정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성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성인의 성을 위해 건강하고 순결하게 예비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성별분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983년도 지도서에서는 가정내 성별분업을 이상적이고 당연한 형태로 설명하였지만, 이후 지도서들은 가사노동과 양육을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분담해야 한다고 쓰고 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분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있지 않다.

청소년기는 학생의 역할이 성역할보다 강조되는 시기이므로 사회에서만큼 성차별을 경험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날 청소년기는 점점 연장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남녀 성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경험한다. 청소년기는 진로 선택으로 고민하는 시기이므로 청년 후기에 해당하는 시기를 염두에 두고 보다 실질적인 내용으로 성별분업과 성차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성교육 기관들은 양성평등 문제까지 다루지 않고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초점을 맞춘 성교육을 주로 제공한다. 이 부분까지 성교육의 범주에 넣어서 한꺼번에 아우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 섹슈얼리티 교육의 논리와 양성평등의 논리를 조화시키는 것은 진정한 성인지적 민감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교육 내용은 학교 성교육 지도서 내용에 계속 다루어져 왔다. 이는 그 부분을 공교육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초기에는 남녀평등 문제를 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했으며, 남녀가 서로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성역할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관계가 강조되었다. 오늘날 성교육 지도서는 그러한 논리를 내세우지 않으며 양성평등이 당위적 가치로 교육되지만, 그러한 교육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려면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평등 교육 담론의 내용 변화는 다음과 같다.

<표3> 평등 교육 담론 내용의 변화

	1983	1993	2001	2008
평 등 가 치 설 명	*남녀평등 - 남녀 역할 우열관 지양, 여성 역할 가치 부여, 서로 존중·협력 *남성은 도구적, 여성은 표현적 역할(가정) *남녀평등과 역할차이를 학생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지도유의	*성역할 고정관념 비판, 양성성 지향	*양성평등 사회 지향 -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사회 활동이 조직되고 운영되는 사회 -성역할사회화 기관(가정, 학교, 대중매체)의 노력 필요	*양성평등 사회 지향
성 역 할 사 회 화	*성호르몬 →남성다움, 여성다움 →성역할 차이 *일반적인 성역할 지도(성별분업 구조)	*성역할은 사회화의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 비판-양성성 강조	*성역할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지도유의 *성역할은 사회화의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 비판-양성성 강조	*남녀의 심리, 적성차이 다루지 않음 *성역할고정관념 비판

V.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학교 성교육 지도서의 내용을 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청소년 성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성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성교육 담론이 구성되어 온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학교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실시된 1983년도 이래 정부에서 발간된 성교육 지도서들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성교육 담론은 1920년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평등 사상과 서구 성과학의 유입, 여성의 교육과 사회 진출의 증가는 기존 사회의 젠더 질서를 흔들었으며,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담론들이 형성되었다. 여성이 공적 공간에서 남성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남녀풍기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여학교들은 엄격한 훈육을 통해 학생들을 단속하려 노력했다. 평등의 개념은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어떻게 상정할 것인가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당대 지식인들이라면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가치였으나, 정조 문제와 맞물리고 현모양처를 거부하는 신여성들이 문제가 되면서, 기존 사회의 젠더 질서에 끼워넣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여성 비하적 태도를 지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가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담론이 정리되어 간다. 여성도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질 것이 주장되었으나 전통적인 성별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한편 성과학은 ‘위험한 춘기발동기의 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유포시키며 남녀 청소년을 각각 적절한 방법으로 통제하고 훈육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담론을 만들어 갔다. 성이 가정과 지역 사회 안에서 통제되던 전통 사회와 달리 새로운 성문화가 쏟아져 들어오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느꼈으며, 청소년들을 적절하게 교육시키기 위해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담론이 형성되어 간다.

해방 후 격변의 시기를 거치며 사회도덕을 재확립하는 차원에서 여성의 정조 윤리가 강조되었으며 현대 사회의 바람직한 남녀관계와 성역할을 적절하게 재규정하는 작업이 교육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한국적인 학교 성교육 담론이 구성되었다. 성교육이 공식적으로 실시되기 전에도 각 학교들은 학생 지도 차원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교육들을 실시해왔다. 주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는데 재생산과 관련된 지식의 전달과 함께 남성의 성욕구를 이해해서 행동을 조심하여 성피해를 방지하는 지도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지도된 주의사항들은 비슷한 내용으로 현대의 성교육 지도 자료에까지 계속 이어진다. 성교육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생리의 차이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학적 사실로 다루졌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 중앙교육연구소에서 최초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학교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중점적인 지도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었으나, 이후 성교육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외국의 성교육 사례들도 많이 소개된다. 학교 성교육은 두발·복장 자율화 조치로 학생들의 유흥업소 출입과 불순 이성교제가 우려되어 공식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본 연구는 공식적 성교육이 시작된 1983년도 이후 정부에서 발행한 성교육 지도서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학교 성교육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성교육 내용은 순결 교육 담론,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담론, 평등 교육 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순결 교육 담론에서는 순결의 윤리적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감소한 대신 청소년기 혼전 성행위의 현실적 문제점과 태아 생명윤리 담론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다.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강조되지만, 이는 주로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분명히 거절하도록 하는 의사소통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2차 성장과 신체변화와 관련하여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욕망에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모성과 재생산에 연결시키는 설명 방식과 남성과 여성의 성생리의 차이를 근거로 이성교제시 주의사항을 지도하는 내용은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다.

성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담론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성보호 담론이 가장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었다. 성폭력 성매매 문제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다루지만 그 이면의 차별적 젠더권력 관계가 일상적인 성문화에도 반영되어 있음을 드러내지 못한 한계를 보인다.

평등 교육 담론은 초기 지도서에서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기반한 역할의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며 상호보완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후기로 올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비판되고 양성성이 바람직하게 제시된다. 남녀의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적인 성역할 사회화 과정이 비판된다. 양성 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변화해 왔으나 추상적 가치교육에 머물고 현실의 성별분업과 성차별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청소년 성문제는 주로 여성의 몸에 결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여성이 성교육의 주 대상으로 통제받고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성교육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청소년의 성문제는 단순히 성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 권력관계가 투영되어 발생하는 젠더화된 섹슈얼리티(gendered sexuality)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성 청소년들은 가부장적

사회의 젠더 체계가 여성을 어떤 존재로 규정하는지 깨닫고, ‘생물학적 운명’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성 청소년들의 진정한 세력화가 가능해지면, 새로운 방식으로 남성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며, 청소년 성문제도 새로운 해결의 가능성을 갖게 될 것이다.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존재로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교육에 여성주의적 시각이 도입되어 차이와 평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2. 시사점 및 제언

기존의 여성 중심적인 순결 담론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순결 교육 담론과 여성 청소년의 성을 피해자화 하며 청소년 성보호 담론을 강하게 반영하는 성폭력·성교육 예방 교육 담론은 평등 교육 담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성과 섹슈얼리티 교육 내용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양성평등 교육은 당위적인 평등의 가치를 교육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청소년들의 현실에 와닿는 구체적 내용들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성적 갈등 상황에 대해 역할극과 의사소통 훈련을 시키듯이, 가정내 성별분업 문제에 대한 다양한 갈등 상황을 상정해 역할극을 시켜보고 의사소통 훈련을 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차별 상황과 관련법을 알아보고, 권력 관계를 성찰해 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성교육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지도서의 내용 분

석을 통해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여성 청소년들이 섹슈얼리티 관계에 투영된 젠더 차별적 권력 관계를 날카롭게 인식하고 스스로를 세력화시켜 남성 청소년들과 주체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앞으로의 성교육은 성지식 교육에 머물지 말고 성정치 영역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문교부(1983). 성교육 지도자료-중·고등학교 교사용.
- 교육부(1993a). 중학교 성교육 자료(교사용).
- _____ (1993b). 고등학교 성교육 자료(교사용).
- 교육인적자원부(2001a). (성교육교사용지도지침서) 함께 풀어나가는 성 이야기-중학교.
- _____ (2001b). (성교육교사용지도지침서) 함께 풀어나가는 성 이야기-고등학교.
- _____ (2004). 성교육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여성교육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 교육인적자원부, 부산광역시교육청(2008a). 소중한 성 바로 알기-중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 _____ (2008b). 소중한 성 바로 알기-중고등학교용.
- 강이수, 신경아(2001). 『여성과 일』. 동녘.
- 권보드래(2003). 『연애의 시대』. 현실문화연구.
- 김귀옥, 김순영, 배은경(2006). 『젠더연구의 방법과 사회 분석』. 다해.
- 김은실(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하나의문화.
- 김진균 외(2003).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 권력』. 문화과학사.
- 김진송(1999). 『현대성의 형성, 서울에 판스홀을 許하라』. 현실문화연구
- 늘푸른여성지원센터(2007). 『여성과 섹슈얼리티』.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 보스턴여성건강서공동체(2005). 또문몸살림터(역). 『우리몸 우리자신』. 또하나의 문화.
- 연구공간수유너머근대매체팀(2005). 『신여성 : 매체로 본 근대여성 풍속사』. 한겨레신문사.
- 유미숙 외(2004).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이재경(2003). 『가족의 이름으로 : 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문화.
- 장(윤)필화(1999). 『여성, 몸, 성』. 또하나의문화.
- 장미경(1999).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문학과학사.
- 정희진(2005).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 조한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또하나의문화.
- _____ (1998). 『성찰적 근대성과 페미니즘』. 또하나의문화.
- _____ (2000). 『학교를 찾는 아이 아이를 찾는 사회』.또하나의문화.
- 최혜실(2000).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생각의나무
- 태혜숙 외(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 한국성폭력상담소(1999).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 한국여성개발원(1994). 『중학생 학부모용 성교육 읽기자료 개발』.한국여성개발원.
- 홍봉선, 남미애(2007). 『청소년 복지론』. 공동체.
- 황정미(1995). 『미셸 푸코, 섹슈얼리티의 정치와 페미니즘』. 새물결.
- Barry, K.(2002). 정금나, 김은정(역).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삼인.
- Bordo, S.(2003). 박오복(역). 『참을 수 없는 몸의 무거움』. 또하나의문화.
- Butler, J.(2008). 조현준(역). 『젠더 트러블 : 페미니즘과 정체성의 전복』. 문학동네.
- Christina von Braun, Inge Stephan(2002). 탁선미(역). 『젠더연구』. 나남

- Eisenstein, Zillah R.(1981). 김경애(역). 『자유주의 여성해방론의 급진적 미래』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Felski, R.(1995). 김영찬 외(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 거름.
- Foucault. M.(199). 이규현(역). 『성의 역사1 :앎의 의지』 . 나남출판사.
- Freedman, J.(2001). 이박혜경(역). 『페미니즘』.이후.
- German, L.(1994). 장경선(역). 『여성해방의 정치학』 . 여성사.
- Giddens, A.(1996). 황정미외(역). 『현대 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 새물결.
_____ (1997). 권기돈(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 새물결.
_____ (1998). 임현진 외(역). 『성찰적 근대화』 . 한울.
- Haraway, D. J.(2002). 민경숙(역).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 동문선.
- Harding, S.(1986). 이재경 외(역). 『페미니즘과 과학』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Hartmann, H.(1989). 김혜경외(역). 『여성해방이론의 쟁점』 . 태암.
- Haug, F.(1997). 박용옥(역). 『마돈나의 이중적 의미 ; 슬레이브걸과 일상적 성정
치학』 . 인간사랑.
- Hawkes, G.(2005). 임인숙(역). 『섹슈얼리티와 사회』 . 일신사
- Hooks, B.(2000). 박정애(역). 『행복한 페미니즘』 . 백년글사랑.
- Keller, E. F.(1985). 민경숙 외(역). 『과학과 젠더』 . 동문선.
- Laqueur, T.(1990). 이현정(역). 『섹스의 역사』 . 황금가지.
- Lasch, C.(2004). 오정화(역). 『여성과 일상생활 : 사랑, 결혼, 그리고 페미니즘』 .
문학과지성사.
- Lerner, G.(2004). 강세영(역). 『가부장제의 창조』 . 당대.
- Lorber, J.(2001). *Gender inequality : feminist theories and politics, 2nd ed.*
Roxbury Publishing Company.
- Martine, E.(1989). *The Woman in the Body : A Cultural Analysis of*

Reproduction, Boston : Beacon Press.

- McIntosh, M.(1986). 국가와 여성억압. 강선미(역). 『여성과 생산양식』. 한겨레.
- McLaren, A.(1998). 정기도(역). 『피임의 역사』. 책세상.
- _____ (2003). 임진영(역). 『20세기 성의 역사』. 현실문화연구.
- Moser, C.(2000). 장미경 외(역). 『여성정책의 이론과 실천』. 문원출판
- Pateman, C.(1988). *The Sexual Contract*. Cambridge:Polity Press.
- Stanbury, S.(2001). 고영하 외(역). 『여성의 몸,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한울.
- Tabris, C.(2002). 히스테리아(역).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또하나의문화.
- Thomson, L.(2001). 백영미(역). 『자궁의 역사』. 아침이슬.
- Thorne, B.(1991). 권오주(역).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
- Tong, R.(1989). *Feminist Thought: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Westview Press.
- Walby, S.(1990). *Theorizing Patriarchy*. Basil Blackwell.
- Walters, W.(1999). 김현미 외(역).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여성들』. 또하나의문화.
- Weeks, J.(1994). 서동진 외(역). 『섹슈얼리티 : 성의 정치』. 현실문화연구.

<논문>

- 강보길(1996). 교육현장에서의 여학생의 성별화 과정.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진경(2002). 중학교 성교육 관련 교과 내용 분석 :제7차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미혜(2003). 성과 권력. 『새여성학강의』. 동녘.
- 구경화(2004). 중학생의 성의식과 성교육 실태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균(1968). 스웨덴의 성교육에 대한 논평. 『교육과학』 32. 중앙교육연구소.
- 권보드래(2006). 1920년대의 여성과 연애. 『성, 사랑, 사회』. 지식의날개.
- 권수현(2001).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 권오일(1969). 성교육. 『현대교육』 제69권 5호. 현대교육사.
- 권이혁(1972). 학교별 교과과정 편성시안. 『가족계획』 86. 대한가족계획협회.
- 김동규(1971). 성교육, 그 방향과 과제 -일본 교육계의 동향을 중심으로-. 『새교육』 제23권 7호. 대한교육위원회.
- 김미주(1997).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교재 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백애라, 김정아, 이목소희(2007). 십대청소년의 성경험 및 성태도에 관한 실태조사.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 김선옥(2007). 양성평등 관점에 비추어 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성교육 내용 분석.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일(1970) 성교육 : 그것의 사회성. 『새교육』 제22권 10호. 대한교육위원회.
- _____ (2004). 공교육제도의 형성과 변화. 『공교육 이념, 제도, 개혁』. 원미사.
- 김애라(2007).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여학생의 규범에 대한 협상과 성적 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엘립(2006). 성폭력, 성매매와 법. 『성, 사랑, 사회』. 지식의 날개.
- 김연주(2006). 성적 자기결정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성적 의사결정 능력 및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만(1971). 학교 성교육의 필요성과 일반적 고찰 -스웨덴 국가교육 위원회의 교사용 지침서에서. 『교육평론』 141.
- 김옥기(1968). 성교육의 이론적 배경. 『교육과학』 32권. 중앙교육연구소
- _____ (1971). 성교육의 지도원리와 지도방법. 『교육자료』 137호. 교육자료사.
- 김운주, 유병선(2007). 제 7차 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생물 단원에서 성교육 관련 내용에 대한 연계성. 『경기교육논총』 제15호. 경기대학교교육대학원.
- 김원곤(1969). 중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성교육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6권 1호.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 김윤경(1927). 성교육의 주장. 『동광』 12. 동광사.
- _____ (1929). 성교육의 실제. 『진생』 제5권 제3호. 진생사.
- 김은실(1991). 발전 논리와 여성의 출산력. 『또하나의문화 8호-새로 쓰는 성 이야기』. 또하나의문화.
- _____ (1996). 한국여성의 출산 문화.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 김은우(1953). 혼육론의 재고. 『사상계』 제1권 제4호. 사상계사.
- _____ (1962). 새로운 성교육 『보건세계』 9권 4호. 대한결핵협회
- 김재은(1970) 가정에서의 순결교육. 『새교육』 제22권 10호. 대한교육위원회.
- _____ (1984). 교복 그리고 자율화. 『문교행정』 27. 문교부.
- 김정옥(1989). 학교 성교육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제한(1974). 성교육. 『새교육』 제23권 2호. 대한교육위원회.
- 김주희(2006). 성산업 공간인 티켓 영업다방 내 십대 여성의 ‘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은(2007). 체험학습 방법에 기초한 청소년 섹슈얼리티 교수안 개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균, 정근식, 강이수(2003). 보통학교 체제와 학교 규율. 『근대주체와 식민

- 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 김창수(1957). 성교육 문답. 『새교육』 제9권 제5호. 대한교육협의회.
- 김현미(1997). 여성주의 성교육을 위한 모색. 『한국여성학』 제13권 2호.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회.
- _____ (2002). 청소년기와 섹슈얼리티. 『오늘, 청소년의 성을 읽다』. 지식마당.
- 김현성(2003). 청소년 문제 담론을 통한 주체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혜경(2003). 일제하 자녀양육과 어린이기의 형성 : 1920-30년대 가족담론을 중심으로.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 권력』. 문화과학사
- 김혜원, 이종민(2001).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청소년학연구』 제8권 제1호. 한국청소년학회.
- 나병현(2004). 학교교육의 위기와 공교육 이념의 재검토. 『공교육 이념, 제도, 개혁』. 원미사
- 나윤경(2002). 여성주의적 성교육. 『오늘, 청소년의 성을 읽다』. 지식마당.
- 남미애(2002).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문집』 21권 2호. 대전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맹주천(1953). 학생과 풍기. 『자유세계』 제2권 제3호. 흥문사.
- 민가영(2000). 십대여성의 가출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6). 성매매, 누구와 누구 혹은 무엇과 무엇 사이의 문제인가?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동녘
- _____ (2008). 신자유주의시대 신빈곤층 십대 여성의 주체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무숙(2002). 한국 교육정책에서 젠더문제의 위치와 과제. 『교육사회학연구』 제12권 제2호. 한국교육사회학회.

- 박광배(2000). 아동 청소년의 성적 행위 결정능력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 박연미(2005). 청소년기의 '개념화'와 청소년의 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옥(2001). 1920년대 신여성 연구: <신여자>와 <신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역사와 현재』. 국학자료원.
- 박정애(2000). 초기 '신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교육. 『여성과 사회』 제11호. 창작과비평사.
- _____(2001). 배운 여성의 일, 그 빛과 그림자. 『20세기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 박준희, 전찬화, 전식영, 황응연(1970). 『중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이화여자대학교인간발달연구소. 교육출판사.
- 박준희(1970). 성교육을 위한 문교정책의 방향. 『새교육』 제22권 10호. 대한교육위원회.
- 박태호(2003). 근대적 주체의 역사 이론을 위하여.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문화과학사
- 박필남(1998). 고등학교 성교육 관련 교과서의 내용 분석.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 박혜림(2007). 1990년대 중반 이후 성교육 담론에 나타난 십대여성의 섹슈얼리티. 『페미니즘연구』 7권 1호. 한국여성연구소.
- 방인근(1931). 여학생론. 『동광』 28. 동광사.
- 배영희(1999). 고등학교 성교육 교과서 내용 분석과 학생 성교육 요구도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은경(2003). 여성의 몸과 정체성. 『새여성학강의』. 동녘
- _____(2004).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5).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1960-70년대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사회와역사』 통권67호. 문학과지성사.
- 변혜정(2004).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0권 2호. 한국여성학회.
- _____ (2006). 10대 여성의 삶 읽기를 위한 성인지적 접근. 『십대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은 가능한가?』.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 _____ (2007). 한국의 청소년 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제심포지엄 성인지적 성교육 정책의 비전과 과제』.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 보건복지부(2000).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 성교육 접근모형 개발.
- 서봉연, 전광문(1964a). 순결교육을 위한 기초조사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제1차 중간보고. 『소보』. 중앙교육연구소.
- _____ (1964b). 순결교육을 위한 기초조사 -중고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제2차 중간보고. 『소보』. 중앙교육연구소.
- 서성옥(1983). 자율화에 따른 특별활동 지도. 『교육경남』 80.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 서정애(2002). 10대의 성은 왜 '보호'의 대상인가? 『철학과 현실』 제54호. 철학문화연구소.
- _____ (2006). 미혼모의 섹슈얼리티.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동녘
- 석태중(2003). 한국 성교육의 한계와 향후 과제, 『교육학연구』 제41권 2호. 한국교육학회.
- 소현숙(2001). 정조는 취미다. 『20세기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 손성진(2000). 중등학교 성교육 교재 분석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애리(1999). 1960-70년대 한국의 출산통제정책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아(2003). 현대 사회와 여성의 일. 『새여성학강의』. 동녘

- 신동호(1982). 교육의 자율화. 『교육개발』 16. 한국교육개발원
- 신상우(1931). 『여학생풍기 문제 개관』.대성서림.
- 신상숙(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13호. 창작과비평사
- _____ (2008).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페미니즘연구』 제8권 2호. 한국여성연구소.
- 안유경(2005). 양성평등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의식에 미치는 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창선(1977). 청소년기 성적 적응과 순결교육. 『교육연구』 8권 11호.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 안태운(2003). 일제말기 전시체제와 모성의 식민지화. 『한국여성학』 제19권 3호. 한국여성학회.
- 양난미, 이지연(2008). 고등학생의 강간통념이 성적 자기주장과 상대 통제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제47권 1호.
- 양순옥(1992). 청소년 여성 건강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8집. 한국여성학회.
- 양원정(2002). 학교 성교육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현아(2004). 성매매방지법의 의의와 과제. 『특별심포지움 : 성매매방지법과 성담론』. 한국여성학회.
- _____ (2005). 여성 낙태권의 필요성과 그 함의. 『한국여성학』 제21권 1호. 한국여성학회.
- _____ (2006). 여성인권론의 의미와 쟁점들. 『법제』. 법제처.
- 엄기호(1998). 포르노 문화를 통해 본 청소년 섹슈얼리티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엄연수(1997). 로맨스 문화를 통해 본 여고생의 성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성가족부(2005). 청소년 양성평등의식 교육프로그램. 연구보고서.

오일선 외 4명(1982). 대담 성교육을 말한다. 『교육전남』.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오형석(1970). 한국여성 정결교육의 방향. 『교육평론』. 교육평론사.

왕학수(1957). 사회 환경과 순결교육. 『새교육』 제9권 제5호. 대한교육협회의.

우옥영(2006). 학교현장과 ‘여성’, ‘평등’에 관한 문제와 대안. 『십대를 위한 성인 지적 관점의 정책은 가능한가?』.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_____ (2007). 청소년을 존중하는 성교육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국제심포지엄 성인지적 성교육 정책의 비전과 과제』.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원미혜(2002). 늑대를 타고 달리는 여자들과 함께.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삼인

원홍균(1957). 남학생에 대한 순결교육. 『새교육』 제9권 제5호. 대한교육협회의.

_____ (1966). 성교육의 필요성. 『새교육』 제18권 10호. 대한교육협회의.

유은주(2000). 교사의 교육경험을 통해 본 학교 성교육에 관한 여성주의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갑수(1931). 성교육에 대하여. 『청년』 제11권 제3호. 청년잡지사.

이근진(1970). 순결교육의 내용과 방법. 『새교육』 제22권 10호. 대한교육위원회.

이나영(2005). 성매매 : 여성주의 성 정치학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 제21권 1호. 한국여성학회.

- 이남규(1969). 벽에 부딪친 미국의 성교육. 『새교육』 제21권 7호. 대한교육위원회.
- 이동식(1966). 성교육의 방법과 범위. 『새교육』 제18권 10호. 대한교육협의회.
- 이명선(2000). 식민지 근대의 ‘신여성’ 주체 형성에 관한 연구-성별과 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06). 신여성과 성애화.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동녘
- 이명실(2005). 젠더화된 교육정책. 『아시아여성연구』 제44집 1호.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 이명화(2007). 청소년 성범죄, 왜 늘어만 가나. 『새교육』 632호. 한국교육신문사.
- 이박혜경(2003).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결혼과 가족. 『새여성학강의』. 동녘
- 이상록(2001a). 위험한 여성 전쟁미망인의 타락을 막아라. 『20세기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 _____ (2001b). 전쟁의 폐허위에 다시 세워진 정조관념. 『20세기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 이석락(1954). 청년과 성교육. 『신태양』 제3권 제1호. 신태양사.
- 이성두(1983). 교복 자율화 이후의 생활지도 방안. 『부산교육』 226.
- 이수남(1957). 정결교육과 교육과정. 『새교육』 제9권 제5호. 대한교육협의회.
- 이영자(2000). 대안적 패러다임으로서의 페미니즘 : 가능성과 딜레마. 『한국여성학』 제16권 1호. 한국여성학회.
- _____ (2004). 신자유주의 노동지상과 여성노동자성.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한국여성학회.
- 이영란(2007). 고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예비적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미(2004). 공교육의 역사성, 『공교육 이념, 제도, 개혁』. 원미사.

- 이인기(1954). 교육의 이념과 학생풍기. 『신천지』. 서울신문사.
- 이일영(1955). 학생범죄의 격증과 대책을 논함. 『성균』 6권. 성균관대학교.
- 이재경(1993). 국가와 성통제. 『한국여성학』 9집. 한국여성학회.
- 이종범(1977). 순결교육의 실천연구. 『교육연구』 8권 11호.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 이진경(2003). 한국 '가족계획사업'의 생체정치학. 『문화과학』 봄 33호. 문화과학사.
- 이진순(2003).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중(2007).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성폭력관련형법개정안 공청회』. 여성인권법연대.
- 이훈구(1982). 학교 생활과 자율화. 『청소년』 18.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 임유숙(1968). 성교육의 실제. 『교육과학』 32권. 중앙교육연구소.
- 임재택(1983). 자율화에 따른 생활지도. 『부산교육』 226.
- 장련필(1948). 학생위생보건에 대하여. 『새교육』 제1권 제2호. 대한교육협의회.
- 장병림(1971). 성교육의 목표와 지도방법에 따른 몇가지 문제. 『교육자료』 137호. 교육자료사.
- 장수정(1998). 20대 대졸 여성의 피임 경험을 통해 본 성적 주체화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원규(2003). 젠더 관점에서 본 한국 교육정책의 변천 과정과 발전 과제. 『교육학연구』 제41권 4호. 한국교육학회.
- 장원실(2005). 성교육이 여고생의 성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필화(1992). 몸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한국여성학』 8집. 한국여성학회.
- 장학일(1970). 순결교육의 내용과 방법 : 초등학교 아동에 있어서의 경우. 『새교육』 제22권 10호. 대한교육위원회.
- 장혁표(1983).복장 자율화에 따른 생활지도. 『교육경남』 80. 경상남도교육위원회
- 在藤 學(2000). 젠더와 교육과정. 『여성연구논집』 제11집. 신라대학교여성문제연구소.
- 전광문(1967).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식과 지도. 『청량원』 70. 서울대학교사범대학 청량원사.
- _____ (1970). 성도덕의 세계적 경향. 『새교육』 제22권 10호. 대한교육위원회.
- 전찬화(1970). 매스컴과 순결교육. 『새교육』 제22권 10호. 대한교육위원회.
- 정고미라, 하정옥(2003). 성차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새여성학강의』. 동녘
- 정미경(2001). 현모양처와 신여성의 동상이몽. 『20세기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 정유성(2006). 교육담론에서의 남성성 문제. 『평생교육연구』 제12권 2호. 한국평생교육학회.
- 정해수(1984). 자율화와 학생지도. 『교육개발』 32. 한국교육개발원.
- 정해숙, 김연(2002).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내용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정희진(2006).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어서.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동녘
- 조경원(1999).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교육의 방향. 『교육과학연구』 제29집. 이화여자대학교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 조숙자(2003). 6, 7차 교육과정 중 가정과 기술가정 교과서의 성교육의 비

- 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4권 1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조윤정(1996). 여성의 성적 주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은(1997). 모성·성·신분제. 『사회와역사』 제51집. 한국사회사학회.
- 조한혜정(1998). 청소년 성문화 : 성적 주체로서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4권 1호. 한국여성학회.
- _____ (2006). 21세기 십대 여성 임파워먼트를 위한 비전과 과제. 십대여성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 조형근(2003). 식민지 체제와 의료적 규율화, 『근대 주체와 식민지 규율 권력』. 문화과학사
- 주요섭(1931). 학생풍기물란론. 『동광』 28. 동광사.
- 주요한(1931). 성에 관한 제 문제. 『동광』 28. 동광사.
- 주정일(1957). 외국의 순결교육. 『새교육』 제9권 제5호. 대한교육협의회.
- _____ (1967). 가정에서의 성교육. 『청량원』 70. 서울대학교사범대학 청량원사
- 주종환(1971). 순결교육의 문제점. 『교단』 51. 교단사.
- 중앙교육연구소 생활지도연구실(1968). 순결교육지침서 작성연구. 『소보』. 중앙교육연구소.
- 차재순(1957). 여학생의 순결교육. 『새교육』 제9권 제5호. 대한교육협의회.
- 천종욱, 하태무(1975). 국민학교 고학년의 성교육 지도의 실제. 『문교월보』 72. 문교부 중앙교육연구원.
- 최경화(2006). 양육 미혼모의 삶의 과정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미정(2006). 청소년의 성적 주체성 향상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미희(2008). 중학교 성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수영(2005). 십대여성의 외모관리 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원혜(2005). 양성평등교육관점에서 본 중학교 사회교과서 내용분석. 『교육연구논총』 제26권 1호.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 최이숙(2002). 1970년 이후 신문에 나타난 청소년 개념의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정자(2003). 사회교과서에 나타난 양성평등 교육 내용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종옥(1978). 중등학교에서의 성교육의 실제. 『청소년』 가을호. 서울청소년회관.
- 최혜숙(2004). 중학교 과학교과서 성교육 관련 내용분석과 중학생 성지식 수준 및 요구도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한은주(2003). 청소년의 주체적인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청산(1931). 기생철폐론. 『동광』 28. 동광사
- 허라금(2005). 성주류화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 ‘발전’에서 ‘보살핌’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 1호. 한국여성학회.
- 허창수(2006). 성인지 관점의 양성평등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양성제도에 대한 제언. 『교육과정연구』 제24권 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 현병진(1957). 한국 교육과 순결교육. 『새교육』 제9권 제5호. 대한교육협의회.
- 홍말숙(2008).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 효과 메타분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봉선(2005). 청소년의 성주체성을 중심으로 성태도 관계 해석 및 제언. 『성주체성, 성개방성, 몸이미지, 성갈등, 성평등성의 관계는?』 아하!청소년성문화

센터 연구조사세미나집

_____ (2007).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성주체성 길러주자. 『새교육』 632호. 한국교육신문사.

황은자(1993). 성교육 지침서 분석을 통해 본 성 이중성. 『한국여성학』 9집. 한국여성학회.

황정미(2001). 개발 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1960-70년대 한국 부녀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철수(1982). 자율화 시책에 따른 생활지도. 『문교행정』 3. 문교부

Scott, J.(2001). 배은경(역).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가지 성찰. 『여성과 사회』 13. 한국여성연구소.

Theodore Jun Yoo(2008). 식민화된 신체 : 조선인 여성의 성과 건강. 『아세아연구』 제51권3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인터넷자료>

늘푸른여성지원센터 뉴스레터, 2008.10.10

교육과학기술부 부처뉴스. <http://mest.korea.kr/gonews>. 2008.09.11

SIECUS 홈페이지 <http://www.siecus.org>.

ABSTRACT

An analysis of sex education texts in schools from the gender-sensitive perspective

Park, Jong Eun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ritically analyze the content of sex education texts in schools from the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and to find a desirable direction for sex education to resolve teenage sex issues. To this end, the process of sex education discourse in Korea was studied historically; and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content of sex education texts that have been issued by the government since 1983, when sex education was officially launched in schools. Gender-discriminative content in sex education is problematic in that it distorts teenagers' values and serves to perpetuate gender inequality in society.

The content structure of school sex education texts was analyzed by categorizing it into the chastity education,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exual traffic prevention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education.

Let us first focus on the chastity education. Early sex education texts emphasized the ethical values of chastity, but, as time passed, the texts

increasingly explained the dangers and practical issues caused by teenage sexual intercourse. The content of the texts has also changed in a way that encourages teenagers to make reasonable decisions and clearly express their opinions. The texts emphasize 'sexual self determination,' but do not acknowledge teenagers as entities that have sexual rights. They still put forward the gender-discriminative logic that sexual intercourse before marriage is a loss for women. Scientific knowledge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terms of sexual desire is also still presented as a basis for justification. With regards to secondary sexual character and physical changes, there remains gender-discriminative content that makes men form gender identities based on sexual desires, and makes women form gender identities based on motherhood. In other words, the texts have limitations in that they attempt to resolve teenage sex issues by imposing control on female teenage sex.

Earlier sex education texts defined a 'gender equality' as understanding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roles between men and women based on biological differences, and men and women respecting and mutually complementing each other. In contrast, later sex education texts criticize gender role stereotypes and uphold androgyny as desirable. The texts present research outcomes that say that the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re not innate, and denounce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gender roles that takes place in homes, schools, and society. The texts rightly shifted toward promoting a gender-equal society but have their limitations in that they do not fundamentally raise an issue with the gender division of labor in the patriarchal society.

Women have been the main subjects of control and management of sex

education because it is women's bodies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teenage sex. This kind of sex education has structural limitations. Teenage sex issues are not simply restricted to sexual desire. They are a 'gendered sexuality' issue that arises due to the discriminative power structure between men and women in a patriarchal society. The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and sexual traffic prevention education can't reveal the gender system of teenage romance culture. Teenage females need to realize how the gender structure of patriarchal societies defines women; and should be able to go beyond 'biological destiny' to plan their own lives. When teenage females are truly empowered through this process, they will be able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with men, and teenage sex issues will more likely be resolved. Feminine perspectives should be adopted in sex education and the matter of difference and equality should be actively addressed so that women can exercise 'sexual self-determination' in its truest meaning, as equals to men.